

易哲學에 對한 逆說論

정보



소개글

정보의 논문 -

일상생활에서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지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더욱이 이 시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기자들까지도 미신에 동조 혹은 조장하는 글을 써서

더더욱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작으나마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나아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국민들 다수가 그 미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본 글을 썼다.

본시 이 글은 논문 형식으로 쓴 것인데 蘇東坡 시인의 말마따나 글은 보다 쉽게 읽혀져야 글이라는 말에 따라

쉽게 쓰고자 했다. - 책 머리에 - 중에서

목차

1 - 논문 - 易哲學에 對한 逆說論 (逆易)

易哲學에 對한 逆說論 (逆易)

- 책머리에

일상생활에서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지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더욱이 이 시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기자들까지도 미신에 동조 혹은 조장하는 글을 써서 더더욱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작으나마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나아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국민들 다수가 그 미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본 글을 썼다.

본시 이 글은 논문 형식으로 쓴 것인데 蘇東坡 시인의 말따나 글은 보다 쉽게 읽혀져야 글이라는 말에 따라 쉽게 쓰고자 했다.

易哲學(점, 사주, 관 수상, 풍수지리 등 운명철학을 통칭)을 말하는 학문들에 대하여 모두가 긍정하는 사람들만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던 중, 우리나라에는 이 분야 즉, 易 逆에 대한 박사 학위 등을 제대로 검증할 위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다. 자칫 건방지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저 숙제를 위한 억지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진실한 오십여 생의 지식을 거울삼았기에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나마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지면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I 序文

영험하다는 달마가
길바닥에 나앉았다.
누가 내다버린 건지
깨진 도자기에 그려진 달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면
그 달마 아니던가!

1] 問題의 提起

우선 먼저 易 점, 사주, 관 수상, 성명학, 풍수지리 등을 내세워 知的 해설을 하고 그 代價를 돈으로 받는 행위의 자들을 모두 통칭하여 역철학자들이라 하고, 그에 관한 학문을 역시 통칭하여 역철학이라 하자. 여기에서의 易은 역시 周易의 역으로써 동양의 모든 기본 사상이 그 주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그 易에 대한 逆을 주제로 삼았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위대한 시대이다. 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과학은 그 끝을 모르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기만 한다. 더불어 달나라의 토끼는 오간데 없어지고 우주과학은 미지의 세계로 자꾸만 뻗어 나간다. 컴퓨터는 이미 상상을 넘어 그 작기는 마이크로(100만분의 1), 나노(10억분의 1) 시대를 넘어 피코(1조분의 1) 시대로 가고 있고, 크기는 메가(100만), 기가(10억)를 넘긴지 오래, 곧 테라

(1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알고리즘은 무한히 개발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또한 진보를 거듭한다. 그러한 속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만화로만 보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 정보화는 화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일상이 되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장밋빛 환상이라고 여겨지던 정보사회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우리 생활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추세 또한 유비쿼터스 등의 여러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왜 우리는 구태의연한 그 미신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우리들은 역철학을 신봉하며 그 역철학자들과 더불어 자꾸 늘어가고만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왜 위와 같은 역철학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긍정하는 사람들만 생겨나는가?

먼저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의 확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즉, 그 미신에 대해 긍정을 해야만 그것을 주장하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이며, 부정의 논리를 펴고 싶어도 그 부정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 아니면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고 해도 좋다. 즉, 미신에 대한 어떤 대입이라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풍수지리를 예로 들기로 하자.

어떤 유명한 풍수지리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사진까지 제시하며 보여준 것을 보면, 어느 지형의 생김새가 지네 같다고 제시한 것이 있다. 그 지형의 지네 목에 해당하는 자리를 잘라 철도를 놓았기에 그 기가 잘려져 그 지역 운세가 쇠퇴해졌다는 말이다. 여기서 그 지네라 함은, 땅의 모양새가 지네와 같은 형상을 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땅 모양의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하여 그 산과 지네가 같을까. 우리나라의 국토는 거의가 여러 형태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국토의 칠팔십 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동물의 형상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슨 엄청난 모양이라도 갖고 있는 양 호들갑을 떨어대면 듣는 이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말에 수긍하는 듯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귀를 기울인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일은 당한 이들을 찾기란 또 다시 힘든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귀 기울인 자들은 그것에 대한 해법을 묻게 되고 그 해법이란 즉, 바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는 없어지고 그 미신을 빙자하여 반대급부를 노리는 이들이 있기에 오히려 역철학자들만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세치 혀에 놀아나 삶이 어지러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 해답을 얻고자 문제를 제기한다.

2] 易哲學 研究의 推移

否定은 肯定보다 뛰어나다. 그건 긍정 이후라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긍정하는 사람에 비하여 한 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을 지을 때 부정문을 만드는 것은 긍정문을 알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예를 들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그 허점을 노리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아울러 과학의 근원도 역시 부정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왜" 라는 의문의 부정을 갖지 않았다면 과학의 발전은 이룩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남들이 다 긍정하려는 역철학을 부정하는 일은 그 역철학을 이미 다 알고 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기에 그렇게 이루어진 부정은 긍정보다 이미 한 수 위라는 뜻이다.

논문에 참고 될 만한 책을 알아보기 위해 교보문고엘 들렀다.

그 많은 책들 중에 역철학을 부정하는 책들은 없었다. 역철학에 대해 소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긍정하는 책들만 나와 있지 눈 씻고 그 어디를 찾아 봐도 역철학을 부정한 책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컴퓨터 자료 목록을 뒤져봐도 없다. 다시 말해 술, 담배, 도박, 마약 등에 관한 중독이나 의존증에 대한 연구서적은 많으면서도, 점과 미신에 관한 역철학 의존증에 대한 책들은 없었다.

다시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으나 역시 모두가 역철학에 대한 긍정 논문이었을 뿐 단행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어느 곳 하나 본 논문에서 주제하고자 하는 역철학을 부정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유사 논문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본 논문 작성이 좀 더 쉬웠을 것이나, 전무후무한 논문이기에 느끼는 허무함과 막연함은 그 뭐라고 표현하기 허탈하다. 그러나 결국 애를 써서 어렵게나마 연구는 해 봤지만 그 아쉬움이야 어찌 적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어차피 운명 철학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보이는 사물과 달라 예스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일일 것이기에 본 논문에서 이 정도의 작은 길이나마 열어 놓고, 이 길을 토대로 다음 연구자들에게 좀 더 만족스럽게 넓혀지는 확장의 길을 기대해보기로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나마 삼았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에 비하여 “그렇다.” 라는 확신성 보다는 “그럴 것이다.” 라는 추상적 단어를 때론 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독자들은 이해하길 바란다.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궁극적 목적이 정확한 통계나 수리적인 합리성을 띄지 못하는 철학적인 문제라는 점을 필자 역시 느끼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런 학문은 영원히, 명쾌하게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 研究의 方法

易哲學이라고 하는 歷史的 事實은 그 어떤 단일한 범주의 학문 속에 배타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을 만큼 한국 文化의 여러 분야에 관련을 맺고 있는 광범위한 主題이다. 따라서 역철학을 바르게 探究함에 있어서는 우리민족의 정치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종교, 철학, 경제, 사회, 민속, 문학 등 모든 分野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論意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학문상의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비록 生活學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하나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역사적 연구 방법과 지금까지 살아 온 우리민족 삶의 애환과 그 깊이를 더하되 정으로 만의 접근성을 피해 현대 과학으로의 접근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각 분야를 기반으로 한 소재의 밀접함인 동시에 실험의 의미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비교 연구의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이랄 수도 있는 특이성이 주는 교훈은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準據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 즉, 역사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그 기원, 성장, 발전 과정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지고 또 그러한 이해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 교훈으로 제공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역철학의 경우는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학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종교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역철학 연구에 있어서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종교란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가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차적으로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이다. 그러나 종교가 가지는 그와 같은 속성들이 객관성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되어서도 안 된다. 학문의 생명은 바로 그 객관성이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 인식의 타당성이 바로 진리로서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無指向의인 객관성이 오히려 학문 대상에의 유연성을 상실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한 최대한으로 객관성을 지니려 애썼다. 자료 선별과 처리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일차 사료적인 원전의 涉獵에서부터 주제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으며 자료의 발굴에 있어서는 특히 여러 종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역철학에 관한 문헌이나 논문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종류의 취약함을 지양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차적으로는 자료 부재에 의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마는 진보적인 의식의 지향성으로 그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역철학의 새로운 면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는 인간 누구에게나 그 인생 삶에 대해 매우 커다란 도

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4] 研究의 範圍

본 論文에서 말하는 역철학의 각 分野(주역, 성명학, 사주, 풍수지리, 관 수상, 부적 등)로 말하자면 그 하나하나마다의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 그 넓이와 깊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 逆說을 말하고자 함에는 共通分母가 있다. 즉, 허무맹랑함을 지적하지는 것이다. 이에 그 핵심을 벗어나지 않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적해 나가기로 한다. 그러나 역철학의 기본 뜻은 그 본질의 잘 잘못을 떠나 그대로 표현하고자 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역철학에는 우선 사서삼경의 주역과 사람마다 갖는 이름을 풀이로 하여 운명을 점친다는 성명학,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時間(年, 月, 日, 時)을 計算으로 하는 사주 그리고 땅의 기운으로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風水地理, 또한 인간의 얼굴과 손을 보고 미래를 점친다는 관상, 수상과 글자의 힘을 빌려 악귀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 온다는 符籙에 관하여 그 하나하나를 그 範圍 對象으로 삼았다.

아울러 각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나 자료를 그대로 발췌하여 본문에 실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역철학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그 실제의 재미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며, 또한 각 분야마다 필자의 실제 경험적인 내용을 사실적으로 反論하고자 逆辯에 대한 解說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쓴 것은 지식인이든 비지식인이든 간에 국민 누구에게나 널리 읽혀져서 많은 이들이 역철학에 대한 무지한 신봉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II. 逆 周易

건위천, 곤위지
산통이 손에 잡혀 흔들린다.
내 눈 속엔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흑백의 추상화.
곰, 사자, 늑대, 여우는 물론
나비, 거미 등 온갖 곤충도 보인다.
심지어는 유령의 모습도 보인다.
어느 바보 같은 년이 찾아와 궁금해 하면
눈감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지껄이며
그 혼령이 몸에 들었다 하면 껌벅 죽는다.
바보들, 지들 눈에도 다 들어 있을 텐데...

1] 周易의 理解

주역은 유교의 경전이라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즉, 논어□ 맹자□ 대학□ 증용의 사서四書와 시경□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오경五經 중에 하나이다.

- 주역은 역경 易經이라고도 한다. <경 經> · <전 傳>의 두 부분을 포함하며 대략 2만 4,000자이다. 주(周)의 문왕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괘(卦) · 효(爻)의 2가지 부호를 중첩하여 이루어진 64괘 · 384효, 괘사(卦辭), 효사(爻辭)로 구성되어 있는데, 괘상(卦象)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쳤다. 주나라 사람이 간단하게 8괘로 점을 치는 책이었으므로 <주역>이라고 했다. 정이(程)의 주석서 <역전 易傳>은 경전의 해석을 통해 철학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관, 윤리학설 및 풍부하고 소박한 변증법을 담고 있어, 중국 철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전> 계사편(繫辭篇) 등에서는 음·양 세력의 교감작용을 철학범주로 격상시켜 세계 만사만물(萬事萬物)을 통일된 체계로 조성했다. 이로써 진대(秦代) · 한대(漢代) 이후의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서양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석본은 매우 많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주역정의 周易正義> (위나라 王弼 및 진나라 韓康伯의 注, 당나라 孔穎達의 疏) · <주역집해 周易集解> (당나라 李鼎祚의 輯), 현대 가오형[高亨]의 <주역고경금주 周易古經今注> · <주역대전금주 周易大傳今注>가 있다.

(다음 대백과사전)

- 周易의 紀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을 말한다. 본래 역에는 주역 이외에도 귀장역과 연산역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역이 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주역은 주나라의 군주였던 문왕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후, 주공에 의해서 괘, 효사가 완전하게 정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은 변화를 상징한다. 역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해(일)와 달(월)의 두단어로 합성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주역은 영어로 'the book of change'로 번역되기도 한다.

동양에서 모든 학문과 철학의 기초가 되는 주역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복희씨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희씨가 우리민족의 환웅천황시대에 5대 환웅임금의 막내아들로 중국에 가서 임금이 되었다고 한다.

하늘의 이치에 통하였던 복희씨는 하수(황하강의 한 유역)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그려있는 하도(하도, 용도라고도 한다.)의 이치를 깨닫고, 아직 글자가 없던 시대에 세상의 모든 것을 8괘(소성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겹쳐서 64괘(대성괘)를 만들어 삼리만상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상징하였다.

중국의 은나라 말기 주나라 문왕이 64괘에 각각 괘사(괘사, 괘 전체를 설명하는 글)를 붙였으며, 주문왕의 아들로 주나라의 정치제도와 유학의 기초를 정립한 주공이 효사(효사, 하나의 괘는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효를 설명한 글)를 붙였다.

후에 공자는 꿈속에서 만나 배울 정도로 주공을 흠모하였다고 하며, 책을 묶은 끈이 세 번 떨어질 정도로 주역에 심취하였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를 십익(십익)이라고 한다.

(다음 백과사전)

가. 易經이란 무엇인가?

역경易經의 “易”이란 글자는 도마뱀을 옆에서 본 상형문자象形文字로서 상부上部의 “日”자는 머리 부분이고 하부下部의 “勿”은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종류의 도마뱀은 12시종이라고도 하며 몸의 빛깔을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변한다는 데서, “易”이라는 글자(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죽筮竹을 셈해서 그 수數의 변화에 의해 점占을 치는데서 점서서占筮書에 “易”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오랜 기록에 의하면 주周나라 때는 연산역連山易, 귀장역歸藏易, 주역周易이라는 세 종류의 점서서占筮書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역周易 하나뿐이다.

주역은 처음에 운세를 판단하는 말을 모은 것뿐이었으나 후에 와서 서사筮辭에 대한 주석註釋이나 주역 전체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이 전개되어 차츰 철학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주석이나 역이론을 편찬한 것을 십익+翼이라 하고 후에 주역은 이 십익을 포함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십익에 의해서 통일적인 의미를 갖게 된 주역은 점의 원전原典으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윤리를 해설하는 경전經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현대의 주역을 원형原型的의 주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역경易經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역경은 단순히 점을 치는 책으로서 또한 점의 원전으로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가만히 앉아서도 점괘만 풀면 용하게

들어맞는다는 식의 신비적인 느낌과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이나 합리주의合理主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터무니없는 미신이거나 혹은 신비적인 호기심의 대상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후세의 유학자儒學者들이 역경을 신성시神聖視한데다가 역점가易占家들이 그 점괘를 신비화 한데서 만들어진 통속관념이며, 역경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쨌든 점에서는 다소간 신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점易占도 발생 당시에는 신神의 뜻을 듣기 위한 원시적인 주문呪文, 주술呪術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역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 신비성은 점차로 배제되고 인간 자신에 의한 문제추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고전古典으로서의 역경의 생명은 신비적인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주술呪術을 인간화시켜서 실행한 점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요시되었던 사색思索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신비적인 점의 원전原典이라는 선입관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역경을 대하면 독자는 의외로 신선한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역경의 점은 귀신의 조화가 아니다. 그리고 역경에 나타난 길흉吉凶은 변할 수 없는 숙명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마땅히 순응하고 따라야만 할 법칙을 나타내 줌으로써 운명개척이 노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곧 역경의 도道인 것이다.

역경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지만 철학, 윤리의 책으로서 우리가 읽는다 해도, 읽는 사람이 능동적인 사색을 가질 때 비로소 역경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대개 책이라는 것은 그 독자와의 합작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 되는 것인데, 특히 역경은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연적인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역경의 말은 극히 간결하고 단편적이어서 한 번 보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한히 넓혀가는 작업은 독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역경은 신성한 경전經典도 아니고 신비를 말해주고 있는 기서奇書도 아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머리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경의 말은 하나의 암시인 것이다. 사람은 그 암시에서 자유로운 연상連想을 일으켜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역경을 현대에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주역, 노태섭 - 교육출판공사)

나, 易經의 思想

역경의 사상적인 의미부여는 춘추시대春秋時代로부터 진한秦漢에 이르는 시기에 점차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거기에는 그 시대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춘추시대는 사상史上 드물게 보는 변혁기였다. 사회제도는 고대 봉건제에서 군현제郡縣制로 이행移行하고 있었다. 낡은 씨족공동체가 붕괴되는 과정으로서 전통적인 귀족계급의 대부분이 몰락해 가고 있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주왕周王朝의 전통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춘추오패春秋五霸나 전국戰國의 칠웅七雄이 무력으로 서로 대립, 항쟁하고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되풀이 하고 있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변전變轉이 심한 세상에 직면해서 변화의 실상實相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역경 사상의 목적인 것이다. 변전 무상함은 매일매일의 현실로 주어진다. 여러 가지로 생기生起하는 현상은 그저 무질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 그 변화 속에 사는 인간들은 부평초처럼 흔들 이면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전變轉하는 시류時流에 대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기生起하고 소멸消滅하는 현상 속에서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고, 그에 의해서 반대로 인간이 현상現象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역경을 만든 사람들은 그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계를 극한에까지 단순화시켜서 그것으로 세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주역, 노태섭 - 교육출판공사)

다, 易 解釋의 變遷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으로 되어 있는 육경六經(詩, 書, 禮, 樂, 易, 春秋) 속에서 역경은 최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한대漢代에 와서 유가儒家의 사상이 나라의 정통적인 학문으로 정해지자, 역학은 대단한 성황을 보여 전한말前漢末에는 육경의 맨 앞에 놓일 정도로 다른 오경을 통괄하는 지위를 얻기에 이르렀다. 조정은 많은 학관學官 세워졌고, 민간에서도 역의 학설이 퍼져 크게 논쟁을 일으켰다.

한대漢代의 역학은 한마디로 상수역象數易이라고 불리고 있다. 팔괘에 많은 상象을 적용시켜서 괘효사卦爻辭를 모두 상象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방위方位나 역수曆數를 맞춰서 하늘의 운행이나 천지이변天地異變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상수역의 공적은 정밀한 이론에 의해 역경을 점서서占筮書로서 통일적으로 해석한 점에 있으나 그 반면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려는 사상적 의미를 거의 무시하고 오히려 미신과 결탁하는 신비적 경향을 강하게 하였던 것이다. 현재도 남아 있는 방위方位나 역曆에 관한 미신도 (예를 들면 귀문鬼門이라든가 오황五黃의 인寅 따위)은 여기서 비롯한 것이다. 권력의 옹호를 받고 있던 유학자들이 차츰 번잡한 이론과 신비적인 미신에 파묻혀 역경을 재발굴해서 새로운 활력을 준 것은 유가儒家가 아니고 도가道家 사상의 입장에 서 있던 왕필王弼(魏)이었다. 왕필은 한대漢代의 상수역을 일소하고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입각해서 역경을 해석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의 노장老莊적인 해석은 불안한 정세 하에 있던 지식인의 동조를 얻어서 일세를 풍미하게 되었고 나아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공영달孔穎達에 의해 칙찬오경정의勅撰五經正義로 채택되어 오랫동안 권위를 지켰던 것이다.

왕필의 노장적 해설이 부정된 것은 신유학新儒學이 일어난 송대宋代에 들어와서부터다.

송대 유학은 남북조 이후, 도가사상, 불교사상에 압도되어 사상적으로는 거의 몰락 상태에 빠져 있던 유학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성격이 극히 강해서 왕필의 역주易註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주역, 노태섭 - 교육출판공사)

2] 反論

① 易占에 대하여

어떤 불안한 일을 당해서 필자도 곧잘 역점을 쳐보곤 한다.

동전 6개를 한 번 던져 점쳐보기도 하거나 동전이 모자랄 때는 3개로 두 번의 괘를 얻어 낸다. 물론 동전 양 면을 양과 음으로 정해 놓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점은 같은 대상을 놓고 두 번 치지 말라는데도 기분 나쁜 괘가 나왔을 때에는 다시 쳐본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두 번을 점쳤을 때 서로 상반되는 아주 다른 의미의 괘가 나왔는데도 그 의미를 곰씹어 해석해 보면 이상하지만 둘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른 뜻을 지닌 괘가 나왔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이 괘도 맞는 듯하고 새로 나온 괘도 맞는 듯 하다는 얘기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 논 글에 의하고 그 글을 사람이 풀어냈다는 것에서 그 해답이 있다 하겠다. 사람의 한계는 그것인 것이다. 즉, 사람이 사는 일상이 다 거기서 거기에 있기에 잘난 사람도 고민이 있고 못난 사람도 즐거움은 있게 마련인 것이다. 희망 속에 절망이 있고 절망 속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희망과 즐거움을 갖는 속에서도 웬지 모르게 내비춰지는 불안의 절망과 고통이 느껴지는 건 아마도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공통의 의식일 것이다. 그 공통의 의식이 즉, 주역 괘마다가 갖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사업을 구상하던 한 남자가 그 문제에 대하여 뭔가 해답을 얻고자 괘를 뽑았더니 건위천 卦가 나왔다. 그의 아내 역시 답답하던 차에 동네 철학관에 들러 그 사업에 관해 물었더니 곤위지 卦가 나왔다. 아니 꼭 그 두 괘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 괘를 떠올려도 좋다는 예로서, 그래도 가장 대조된다는 양과 음 괘를 예로 들어 보자. 독자들은 그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하여 점을 쳤을 때 아래 내용의 답을 얻었다고 해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각 효의 설명 하나 하나는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뜻이 아니므로 배제하기로 한다.

우선 건위천乾爲天 卦의 해석이다.

건乾은 굳세고 강건하다는 것이다. 하늘이 넓고 무한히 큰 것처럼 올바른 사람은 앞이 막히는 일 없이 정정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원만성圓滿性을 몸에 지니고 성실하게 정도正道를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운세

건乾은 무한히 큰 하늘은 의미한다. 또한 위대한 부친父親을 위미한다.

이 괘는 전부가 양일陽—로 되어 있어서 역경에서는 여섯 마리의 용이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한 “군자는 노력을 쉬지 않는다.”는 대상大象의 말은 언제나 건강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행동함으로써 현실을 뚫고 나아가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기는 항상되어 오르지만 실질이 따르지 못하는 때이다. 관념만이 공전(空轉)하는 일이 많고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은 들뜬 상태이다.

- 사업

물질적으로는 속이 비어 아무 보답이 없다는 뜻을 갖기 때문에, 사업, 상담, 재정 면에서 실질적인 성적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 때이다. 특히 사업 면에선 너무 인내가 많다가 그렇지 아니하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우유부단한 의견이 많아 실행이 안 되는 때이다.

- 교섭(交涉)과 거래(去來)

서서히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나간다면 실패한다든가 혹은 시비에 말려 들어간다. 그러니 쉬지 않고 꾸준히 인내성 있게 나아가면 당장 눈앞에서 성사되기 힘들 듯 한 일이라도 서서히 언젠가는 결실을 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참아야 한다.

다음은 곤위지坤爲地 괘의 해석이다.

곤(坤)은 조용하다. 부드럽다. 따르다. 순종하다는 뜻이다.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적극성이 아니라 남에게 따르는 것을 뜻한다. 기축의 암컷처럼 남에게 잘 따르는 것은 순종의 덕을 표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남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 여자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다. 서남(西南)은 곤의 방향이며 음(陰)이다. 동성(同性)을 의미한다. 서남의 방향으로 간다면 동성의 협력을 얻을 수 있으나 동북은 간(艮)이고 남성을 의미함으로 동북으로 간다면 친구들과 헤어진다. 남편 하나만을 의지하여 정조를 지킨다면 그것으로써 또 평안함을 얻는다. 여성은 남편에 따라서 자기가 의지할 곳과 여자라는 순종의 자각(自覺)을 얻게 된다.

- 운세(運勢)

곤(坤)은 한없이 넓고 넓은 대지를 뜻한다. 대지는 모든 것은 담아서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그 덕이라 하겠다.

또 곤에 어머니의 뜻이 있는 것은 대지가 물건을 양육하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조용하고 잠잠하며 온순하다는 것이 이 괘의 가장 좋은 진퇴의 방법이다.

우선 어떤 일일지라도 사람에게 앞서지 않고, 사람에게 쓰이게 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게 좋은 때이다. 그렇지만 친척들을 돌봐 주어야 할 일이 많은 때여서 고생도 있을 것이라 하겠다.

- 사업(事業)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남들과 상의한다면 좋은 때이다. 또 좋은 힘이 될 이야기 상대가 생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갈 때가 아니다. 모든 점에서 현실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섭(交涉)과 거래(去來)

서로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 자기에게도 우유부단한 점이 있기 때문에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이다.

(주역, 노태섭 - 교육출판공사)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의 일을 놓고 점을 쳤더니 위의 두 가지 답을 얻었다. 독자는 각자 두 가지 해석을 보고 어떤 해석을 내렸는가!

결론적으로 그 어떤 64괘중에 답이 내려지더라도 그 해석은 별반 특이성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은가.

왜 하늘은 아버지며, 땅은 어머니인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풀이를 한 것에 공감할 수 있는가? 왜 여자는 남자 말에만 따라야 하고 순종적이어야만 하는가. 사업을 그와 같이 해석해 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인간은 의지가 나약하면 자신의 심지가 없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기에 점 등 미신이라도 의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 점은 주역의 본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 점 자체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지침서로서 받아들일 일이다.

인간의 운명적인 결과는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② 記事, 무당출신 스님의 희한한 행보

기적을 행하고 대형 사건을 예언했다는 한 스님의 희한한(?) 행보를 6일 MBC 'PD 수첩' 이 취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일산에 본원을 둔 황룡사 주지 해안스님은 높은 도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신도들은 약 800여명, 친견까지는 일주일일이 걸린단다.

해안 스님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고 대형 사건을 예언했다는 소문 때문.

신도들 사이에선 '스님이 암을 낮게 하고, 부자를 만들어 줬다' 거나 월드컵 4강, 대통령 당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등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을 예언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여기다 박근혜 대표, 고건 총리 등 정계 주요 인맥과 친분이 두텁다는 것.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다.

암을 치료했다는 신도는 항암 치료로 상태가 호전 중이었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에 스님을 찾았던 한 신도는 가게를 판돈까지 다 날리며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정재계 해당 인사들의 측근들은 "해안스님의 존재조차 모른다." 며 황당해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스님이 신도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행사와 특이한 방편으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구병시식, 천도제 등 각종 행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몇 천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복향아리, 여우꼬리 등 이상한 방편을 통해 신도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에 나오는 송장 물을 각종 병에 효험이 있는 약이라며 50만원을 받고 신도들에게 먹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안스님이 받는 수입은 월 1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여기다 황룡사 주변 건물 6채가 모두 해안 스님 소유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렇다면 해안 스님은 누구일까.

제작진의 취재 결과 해안 스님은 90년대 중반 내림굿을 받았던 무속인 정정희씨로 밝혀졌다. 정씨는 한때 예지력이 높은 무속인으로 소문이 났다. 주변 무속인조차 그를 주목했을 정도. 그런 정씨가 2000년 갑자기 스님으로 변신해 자신의 점집을 황룡사라는 절로 탈바꿈 시켰다. 그 후 황룡사는 번창해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국내 주요 도시를 포함해 미국까지 포교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교원까지 둔 해안스님이 수계를 받은 정식 스님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스님은 수계 증을 제작진에 제시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수계를 내렸다고 주장한 은사는 방송에서 "그런 일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본 10여명의 신도들은 지난 달 해안 스님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안 스님이 속했다고 알려진 태고종단은 제작진에게 "문제가 있으면 조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얼마 전 신도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나", "송장 물을 마시게 하다니 끔찍하다" 며 황당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경찰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뉴스[TV리포트 조현수 기자])

③ 記事, '내가 낮게 해주마...' 1년 20억 챙긴 '가짜 도사'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엉터리 해결책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가짜 도사의 사기 행각을 14일 방송된 MBC '현장기록 형사'가 재연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 2002년에 발생했다.

송은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마저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다. 절망에 빠진 나날을 보내던 그는 우연히 '기' (氣)를 통해 불치병을 낮게 한다는 수도사의 소식을 들었다. 수도사는 다섯 권의 책까지 퍼냈고, 주변의 소문도 좋았다.

송씨는 그 수도사에게 아들을 부탁했다. 그는 "아들에게 귀신이 붙었다" 며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4,000만원을 수도사에게 건넸다.

그 후 수도사의 책을 펴낸 출판사 사장이 송씨를 찾아와 사찰을 짓는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다. 아들의 치료비마저 제때 내지 못했

지만 “돈을 안내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는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송씨는 사채까지 빌려 4억 원의 돈을 졌다.

하지만 아들의 병세는 심해졌고 병원비가 밀려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얼마 후 아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때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송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짜 수도사는 구속됐다.

문제는 역술인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대법원은 ‘역술인이 점을 봐주거나 길흉화복을 경고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다’ 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워낙 나빠 수도사와 출판사 사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돈 받은 역술인이 사기죄로 기소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곤 했다” 며 “천도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 고 평가했다. 가짜 수도사는 174명으로부터 1년간 21억을 갈취했다.

(다음 뉴스[TV리포트 조현수 기자])

④ 아홉수 結婚 안 좋다고?

아홉수에 해당되는 19,29,39세에는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은 결혼할 때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른 넘겨 결혼하는 것보다 29세나 39세 되는 해에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는다.

결혼정보업체 선우의 커플매니저 최윤정 팀장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면서 “구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따지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29세 되는 해에 결혼을 피하기 위해 해를 넘겨 서른 살 봄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미리 앞당겨 28세 겨울에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10명에 3~4명꼴로 아홉수를 따진다.” 면서 “신빙성이 있든 없든 일단 나쁘다는 것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 때문인 것 같다.” 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홉수 금기’ 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대 민속학과 임장혁 교수는 “우리 전통 개념에서 아홉수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민속학에서는 홀수를 길하다고 보는데 9로 끝나는 해에 운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아마도 주역이나 점술 개념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역리학에서도 아홉수는 ‘엥터리’ 라고 말한다. 역술가 포정씨는 “아홉수는 말 그대로 미신” 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홉이라는 숫자가 단위가 바뀌기 전 숫자이기 때문에 결산하거나 마무리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결혼이나 사업에서 걸림 수가 된다고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사주역학과는 전혀 관계없다.” 고 설명했다.

역리학에서는 10년마다 운세가 바뀐다는 ‘10년 대 운세’ 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전환점이 9로 끝나는 나이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은 2세,12세,22세 식으로 운이 바뀌는 해를 맞는다.” 면서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9로 끝나는 나이에 운이 나쁘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고 말했다.

삼재와 연결지어 3이 세 번 반복되기 때문에 아홉수를 피해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삼재라는 것은 12년마다 돌아오는 일종의 흐름” 이라면서 “삼재와 아홉수를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 이라고 잘라 말했다.

(2005년 11월 23일 서울신문)

⑤ 記事, 점쟁이들의 感世誣民 實態를 告發한다.

사회 곳곳에 혼란기에 흔히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점성술이 만연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이를 돈벌이로 삼는 역술사업이 비정상적으로 급성장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역술사업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커지는 등 비생산적인 사행심과 미신을 조장하는 분야에 막대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점보기 관행이 일반화하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몇 천만 원의 복채를 요구하던 역술가만 믿다 가산을 모두 날리는가 하면 전화를 통한 점괘를 믿고 경험이 없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들은 점을 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사행심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업에 망한 무능한 사람들이 역술인 되어 사업을 명령 한다.

특히 개인교습과 출장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학원 수강료는 비싼 편이다. 6개월 과정에 30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부터 몇 천만 원을 받고 역술인이 되게 해주는 속성교육 학원도 생겨났다. 한 역술인은 “역술학원 수강생의 60% 정도는 경제 불황으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실업층” 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공합을 봐준다면 낮 뜨거운 성관련 상담도 있다. 강 모양(19·여)은 “최근 만난 남자친구와의 공합을 알아보기 위해 700서비스를 통해 역술인과 상담했지만 도중에 성과 관련된 얘기를 노골적으로 물어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고 말했다.

이들이 꼽는 영터리의 유형은 첫째 ‘엄포형’ 이다.

다짜고짜 겁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는 부류다. 일단 ‘무엇이 좋지 않냐 큰일 난다’ 는 말로사람을 당혹하게 한다. 이 유형들은 곧바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부적을 써야한다, 굿을 해야 한다는 등 돈이 드는 행사를 요구한다.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인데 상담만으로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행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이며 피해사례도 제일 많다.

다음은 질문은 별로 않고 혼자 마음대로 떠드는 ‘방송형’ . 생년월일만 묻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연설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이 200~300명이 될 정도인데 생년월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통설이다. 가문 출생지 주거지 환경 등 갖가지 후천적 요소를 참고해야 하는데 성의 없이 떠드는 유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얼버무리형’ . 사주의 격국이나 용신 등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형이다. 명리학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의 변증법적 적용이 가장 어렵고도 핵심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것을 얼버무리는 유형은 실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영터리는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옹한 사람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대답이었다. 공부 오래한 사람답게 글씨를 매우 잘 쓴다든가 과거를 죽집게처럼 알아맞힌다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은 파악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믿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를 잘 맞추는 것과 미래를 파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옹하다고 소문난 경우는 카리스마가 뛰어나거나 손님을 다루는 수단이 능란한 스타일이 많아 알아보기 어려우며 돈이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부채도사로 알려진 김광수씨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맞추어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등 인연도 작용한다고 본다. 흔히 ‘옹하다’ 는 말을 함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고 지적한다.

피해자 엄모(46·은평구 증산동)씨가 서울 송정동에 있는 이모(37·폭력행위등10범)씨의 역술원을 처음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13일. 아내 방모(43)씨와 7년 전에 이혼했던 엄씨는 택시운전을 하며 아들(21)과 단 둘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건강문제로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난 뒤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던 엄씨는 우연히 이씨의 역술원 광고를 접하게 됐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엄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고, 역술원 원장 이씨는 “돈이 없으면 복채를 받지 않고 그냥 봐 줄테니 한 시간 내로 빨리 오라”고 제의했다. 이에 귀가 솔깃한 엄씨는 그 즉시 버스를 타고 역술원을 찾아갔다.

허겁지겁 달려온 엄씨에게 이씨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어 나이와 이름을 적으라고 눈짓했고, 엄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3만원 중 만원을 넣은 뒤 나이 및 이름을 적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이씨가 “나도 집에 가다가 전화 받고 돌아왔는데 만원만 더 넣어라”고 하자, 엄씨는 결국 만원을 더 꺼내 모두 2만원을 넣었다.

복채 2만원을 받고 가만히 관상을 보던 이씨는 느닷없이 ‘당신은 올해 죽을 운세’라고 엄씨를 압박질렀다. 답답한 마음에 심심풀이 삼아 역술원을 찾은 엄씨였지만 막상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했다. 덜컥 겁을 먹은 엄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씨는 곳 대신 ‘육모적설경’을 해야 죽을 운세가 소멸된다고 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엄씨에게 300만원이라는 큰돈이 없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라곤 카드에 남아있던 220만원이 전부. 엄씨는 이 돈을 은행에서 찾아오겠다고 이씨에게 말했고 이씨는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대답했다. 이 돈 중 생활비를 제외한 150만원을 찾은 엄씨와 이씨는 역술원으로 다시 돌아온 뒤 50만 원짜리 봉투 5개를 만들어 법당위에 올려놓은 뒤 ‘육모적설경’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가 150만원을 지불하고 받은 ‘육모적설경’이란 의식은 약 5분에 걸쳐 엄씨가 ‘옴마루널게사바하’라는 주문을 외며 절을 거듭하면, 이씨는 옆에서 목탁을 치며 불경을 읽는 것에 불과했다. 또 그 후엔 엄씨를 눕히고 이씨가 엄씨의 배를 손으로 몇 번 쓰다듬는 것이 고작이었다.

육모적설경이 끝난 뒤에도 이씨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둘이 함께 돈을 인출할 때 이씨는 엄씨의 잔액이 70만 원가량 남아 있는

것을 봤고, 육목적설경이 끝나자 엄씨에게 수고비로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 그다지 여유가 없었던 엄씨는 30만원만 주기로 하고 다시 함께 은행에 갔지만 엄씨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 이씨는 재빨리 '짜짜하다. 50만원 달라'고 하며 50만원을 눌러 버렸다. 엄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씨의 행동이었기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확대된 것은 그 다음. 집에 돌아와 개운치 않은 생각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엄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옴마루널게사바하'를 외면 업장소멸이 되는지 문의했고 그 스님은 "당신은 사기에 걸렸다"고 대답해줬다. 다음날 엄씨는 일어나자마자 이씨를 다시 찾아갔다.

의외로 이씨의 태도는 담담했다. 엄씨의 항의를 받은 이씨는 '신성한 법당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돈은 나 혼자 쓰는 돈이 아니라 관내 장애인들과 함께 쓰는 돈'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엄씨를 달랬다. 또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이름이 좋지 않으니 이름을 바꿔 주겠다.'고 엄씨를 안심시킨 뒤 '당신의 엄달봉(가명)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으니 엄달로 하라.'고 여처구니없는 개명을 해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개명을 해준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집에 데려다 준다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기름 값 7만원을 더 받아냈다.

이씨에게 두 번이나 은혜를 입은(?) 엄씨였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머릿속에서는 '주여주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괴로운 마음에 엄씨는 이씨에게 딱 한번만 더 가보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엄씨에게 이씨는 문제의 '현금 태우기'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엄씨에게 '당신은 원래 48세니까 4800만원을 태워야 하지만 깎아서 480만원만 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200만 원 넘게 써버린 엄씨가 그 돈도 없다고 하니 이씨는 한 번 더 깎아 '그럼 오늘은 관음제일이니까 음력으로 24일, 좋다, 240만원만 태워라'고 편의(?)를 봐줬다.

결국 240만원에서 합의를 본 두 사람은 법당에서 간단한 의식을 마친 뒤, 시너와 양동이를 챙겨 한강 고수부지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엄씨에게 '이래도 주여주여가 계속 떠오르면 그때는 내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강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돈 태우기' 의식을 시작했고, 이씨는 엄씨를 뒤돌아서서 '나무묘법연화경' 주문을 외게 한 뒤 자신은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경찰과 엄씨가 이씨를 의심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경찰 관계자는 "엄씨를 뒤로 돌게 한 뒤 현금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속임수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의식 도중 "법사님, 주문을 외워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주여가 자꾸 떠오릅니다."고 엄씨가 다급히 소리치자 이씨는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질러라. 그리고 소원을 말해라"고 응답했다.

이씨가 시키는 대로 "야"하고 고함을 지른 엄씨는 이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외쳤다. 이렇게 15분간의 '이상한' 의식이 모두 끝나자 이씨는 엄씨를 차에 태워 한강을 빠져 나왔고 이 과정에서 엄씨에게 다시 한 번 기름 값을 내게 했다.

이렇게 갖은 방법을 동원 해봐도 자신의 상태에 변화가 없자 엄씨는 이씨를 찾아가 이에 대해 따졌다. 그러나 이씨는 그런 엄씨에게 태연히 "내가 할 건 다했다.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나. 항의하려면 법대로 해봐라"고 맞섰다.

이에 엄씨는 "역술인 이씨는 내가 올해 안에 죽는다는 등 갖은 악담과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뜯어냈다"며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

그러나 현재 이씨는 불구속을 풀려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씨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란다고 역술인 생활 18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서로 합의하에 점을 봐줬는데 나중에 와서 탄소리를 한다. 엄씨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액땀한 셈치고 참겠다."고 밝혔다.

(http://www.geocities.com/anti_jum/)

⑥ 逆 陰陽五行

역철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신봉하며 살아간다. 궁합을 맞춰보고 결혼, 이사의 날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도장을 새기는 것까지도 길운이라느니 하며 운을 내세우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역철학이 뭐기에 매사를 그에 의존하며 살게 하는 것일까. 의존하고 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믿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역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木, 火, 土, 金, 水))으로 나는 기본 틀 속에서 그 조화를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이론으로 풀이한 것이라 간단히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자고이래(自古以來)로 운명을 말할 때에는 이 기본 틀 안에서

생각하며 그 뜻을 이해하였고, 또 아무런 부정 없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생각으로 의문을 가져 보자.

왜 우리는 여태껏 음양오행의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했는가? 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바로 그 음양과 오행이라는 구분을 과연 누가 나누었으며, 또한 그 음양오행을 누가 대입시켰느냐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완벽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떠올리면서, 여태껏 따라왔던 역철학의 이론들이 의외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낮과 밤은 양과 음을 말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현상이다. 설령 그렇게 낮과 밤이 양과 음을 부정 없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아침노을과 저녁노을 때 나타나는 중간 시간대는 양에 속할까 음에 속할까. 아침 기운은 양이라 우기고 저녁 기운은 음이라 우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양에 속할지 음에 속할지의 시간대 역시 스물네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의 세계에서도 암, 수가 기본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동체 양성인 지렁이 말미잘 등과 같은 동물도 있다. 사람 중에서도 여자도 남자도 아닌 중성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레즈비언이나 호모가 이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주지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수를 음과 양으로의 척도로만 이분법 해대려는 역학의 논리는 타당치 않다.

또한 설령 여자를 음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중년을 넘기면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여성이기보다는 중성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즉, 목소리가 남성처럼 굵어지고 가늘고 날씬하던 몸매가 남성 허리처럼 굵어지는 것이다. 어떤 할머니들은 남성에 가까운 모습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대로 모든 여성을 음으로만 계속 대입하는 사고는 올바른 판단일까.

오래 전, 자연의 이치를 본 사람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럴싸하다고 판단한 기준에 의하여 음과 양을 나누어 놓았을 것이고, 모든 사물의 나눔을 단순히 오행으로 구분한 것 역시 누군가 정해 놓은 그 당시의 이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 텐데도, 마치 신이라도 있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답이라도 되는 것인 양 인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직, 간접으로 부정 없이 그의 영향을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그 근본적인 부정을 해 보자는 말이다.

왜 모든 사물과 직업과 생활들이 오행 그 다섯 가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인생의 모든 것이 왜 그 다섯 가지 안에서만 억지 추향으로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이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무작정 따라왔고 일방적인 공식의 테두리 안에서 끌려왔던 이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 내용들을 다른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정해 놓은 오행 중에 "火"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은 "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 두 사람을 놓고 풀이하기에, 한 사람은 불, 또 다른 사람은 물이니, 누구나가 그 둘을 풀이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단지 사람으로가 아닌 물과 불로 만의 구분을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사물의 이치로 볼 때, 물과 불의 관계가 상극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은 사물의 논리로 볼 때 하는 말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물과 불로 단정 지어 나눌 수 있느냐는 부정을 가져 본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성격이란 아주 복잡하여, 그것을 일정한 틀에 정해 논다는 자체를 필자는 매우 부정하고 싶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어찌 사람의 마음과 삶을 그 다섯 가지에 맞추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나.

일반적으로 소위 "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물에 이미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리라. 즉, 너는 갑오년 말띠(오행으로는 숲에 해당)이니 말(쇠불이)처럼 해석하고, 다른 이는 정유년 닭띠(火)이니 닭(불)같이 해석해 나가다 보니, 단편적으로는 이해되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어디 말(金)이고 닭(火)이란 말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젠 운명을 믿고 점을 믿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운명철학이라는 음양오행의 공식에서부터 벗어나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

III. 逆姓名學

귀하고 좋은 이름이 뭔데?
“개종이” 이름이 임금님인데
더 좋은 이름이 있을라고...
금(金)씨가 김(金)씨로, 왕(王)씨가 옥(玉)씨로
아이러니컬한 역사.

1] 姓名學의 歷史

중국(中國)의 예절에 관한 책인 예기(禮記)에는 유명관자(幼名冠字)라는 말이 있다. 직역(直譯)을 한다면 어릴 적에는 이름(名)을 짓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字)를 짓는다는 뜻이다. 중국(中國)에는 아이가 태어나 3개월이 되기 전에 아이 이름을 짓고 성인식을 올리고 나면 자를 짓는 관습이 있었다. 이러한 풍습(風習)을 예절의 한 부분으로 삼기하고자 예기(禮記)에 까지 실어 놓고 있다. (인터넷 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남들에게 불려지도록 명명되어진 것이 이름이다. 그 이름을 사람들이 주역에 의미를 더하고 운명을 논한다는 의미로써 좋은 이름을 차별한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성명학이다.

그 성명학을 보면 역의 육갑에 음양오행을 계산하고 한문의 숫자인 획(劃)으로 나누되,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의 인생을 구분하여 길흉을 점친다는 이론이다.

2] 姓名

- 이름[name]

실재하거나 상상적인 개체를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데 쓰이는 한 단어 또는 여러 단어의 묶음.

개체를 가리키는 품사인 '명사'의 대략적인 동의어로 '보통명사'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는데, 이 항목에서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특칭 하는 '고유명사'를 다룬다. 다만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사이에 완전히 논리적인 구분이 지어진 적은 없다. 이름은 일종의 칭호로서 인명, 개개의 동물이나 의인화된 사물(선박·인형 따위)을 지칭하는 준인명, 의인화되지는 않았지만 유의할 만한 이름(예를 들면 플리머스 록), 지명(예를 들면 에든버러), 단체명·회사명(예를 들면 독일인·침례교파·엑스사), 예술작품의 이름(예를 들면 모나리자·실락원), 상표명(예를 들면 상카·바셀린), 역사적 사건이나 중요한 시대의 이름(예를 들면 장미전쟁·르네상스), 의인화되지 않은 개념 및 추상적 개념(예를 들면 왕당주의·회의주의) 등 대략 9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름은 종종 2가지 이상의 범주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드는 인명·회사명인 동시에 이 회사가 제조한 제품의 상표명이다. 인명도 언어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진화와 전파의 과정을 거치며, 흔히 그러하듯이 보통 일상적 어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휘들을 가지고 있다.

인명은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점차 동화되기도 한다. 켈트어 Godofrido가 영어의 Geoffrey 또는 Jeffrey로 변한 것이 그 예이다. 어떤 이름은 독일어 Karl과 같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차용되며, 어떤 이름은 라틴어 Renatus(다시 태어난)가 프랑스어의 Ren가 된 것과 같이 변형된다. 가문의 이름, 즉 성(surname)은 11세기까지 그 원칙이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원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성은 처음에는 귀족들만 분명하게 사용했으나 점차 외부로 퍼져나가 여러 계보를 가지게 되었다. 흔히 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의 이름을 고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존인 알프레드는 알프레드 존스 선(Alfred John's son)이 되고 그의 가족은 존슨스(Johnsons)라고 불렸다. 또 지명이 성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아비뇽 출신의 헨리는 헨리 아비뇽(Henri d'Avignon 또는 Davignon)이라고 불렸으며, 성이 어떤 산업이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여 독일인 거위지기를 베르너 간스(독일어로 Gans는 '거위'라는 뜻)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경우도 삼국시대 이전에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을 비롯한 귀족층에서도 성(姓)이 없이 이름만 쓰였다. 고려 중기인 1055년 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지식층 가운데 상

당수가 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과 이름이 한자식으로 확립되었지만 상민이나 천민들의 이름은 한글을 이용한 고유어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아명을 강아지·개똥이·돌이 등으로 천하게 지었는데, 이것은 전염병에 의해 유아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천한 이름으로써 염라대왕의 관심을 피하고 무병장수하라는 기원에서 비롯되었다. 한자 식 이름은 일반적으로 성씨 한 자에 이름 두 자인데 이름 중 한 자는 항렬자(行列字)로 출생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항렬자의 배열은 오행(水·木·火·金·土)의 순환을 따라 정하며, 이름의 나머지 한 자도 성현이나 임금, 윗대 조상 등의 이름을 기휘(忌諱)해서 써야 한다.

지명도 인명처럼 매우 다양하여 설명적인 이름(Sulphur Creek, High Point), 사건의 이름(Battle Creek, Avalanche Pass),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이름(Pikes Peak, Cooperstown), 새로 만든 이름(Tesnus[sunset의 철자를 거꾸로 씀]) 등이 있다. 지명도 인명과 유사한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켈트어·독일어·라틴어에 의한 이름과 이러한 이름들의 변화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로마어 castra는 영어의 'camp'라는 뜻으로 영국에서 랭커스터 및 체스터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켈트어 Lucodunos가 라틴어 Lugundum을 거쳐 현재의 리옹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토착 인디언어의 어원이 로스앤젤레스·루이지애나·뉴욕·코네티컷 등의 이름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다음 백과사전)

3] 反論

① 어떤 이름이 좋은가

성명학을 보면 피하는 글자들을 많이 지적해 놓았다.

즉, 돌(堊) 자는, 돌맹이라 천한 인상을 주어 단명 한다거나, 용(龍), 애(愛), 운(雲), 화(花), 춘(春), 자(子), 옥(玉), 순(順) 등 많은 글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나쁜 의미를 붙여 피하라고 하는데, 돌 자의 경우 천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야 이해한다지만 그로인해 단명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왕손들의 이름은 천해야 오래 산다하여 막 이름을 지은 경우는 허다하다. 또한 요즘의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런 이름 자를 가진 사람들은 많으며 꽤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일이니 무시할 일이다.

그러니 어떠한 이름이건 간에 소신껏 짓고, 그 받은 이는 자부심을 갖고 따르되 다만, 다른 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이름만은 가급적 피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치국(金治國)” 같은 이름은 그 한문의 뜻이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큰 의미겠으나, 김치국물을 연상케 함으로 인해서 얻는 놀림감이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황구” 라는 이름 역시 어느 한자를 쓰던 간에 발음상 황구黃狗(누런 강아지)를 떠올리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나 사실 저런 놀림감이나 유치한 이름을 갖고도 의외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아마도 그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으니 어느 이름이건 간에 소중히 쓰면 된다.

국내 또는 외국으로 입양되어 간 아이들 중에는 원래의 본 이름을 몰라서 고아원 또는 입양 단체에서 이름을 우선 지어준 경우가 많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지은 것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향후 성장하여 잘 된 경우를 종종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필자도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들에게는 사주나 운명 등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 게 좋다는 것이다. 즉, 과욕으로 남에게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름을 지어주되 좋다는 의미를 한껏 뽑아내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좋다고 하면 좋아한다. 그 반대로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 한다. 그렇게 옛날 어느 누군가로부터 성명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온 것에 맞추다 보니 그 대입법에 따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성명학대로 좋은지 나쁜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세상을 살다보면 나오는 통계적 수치에 의해 어느 것이든 좋은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문문화가 갖는 뜻과 획(劃)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도 없다. 요즘 들어 신세대들의 우리식 이름도 많이 보급되었지만 그런 이름들이 크게 잘못되어 산다는 통계를 본 적도 없거니와 아주 좋은 한문의 성명학자에게 받은 이름이 크게 잘 되었다는 통계 역시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어느 이론에 크게 의미를 붙일 일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자기 주관이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름은 대개가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소신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그 이름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이 더 크다 하겠다.

시대에 따라 그 문화도 달라지듯이 한문적 문화도 시대의 변화가 많이 작용한다.

주로 한문을 지식인들의 글로 생각했던 시대와는 달리 요즘의 한문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는 크게 다르다. 요즘에는 심지어 명문 대학은 나온 이들조차 문교부에서 정해 놓은 한문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작금의 한문은 요즘 시대의 지식 척도가

되질 못한다. 그것은 즉, 한문이 차지하는 일상적 요소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함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문이 주를 이루었던 신문이 이제는 한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고, 요즘 누구나가 대하는 인터넷을 봐도 한문은 그리 눈에 띄질 않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명함에도 쉽게 한글로만 올릴 정도다. 그것은 뜻글자인 한문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문 이름으로 된 뜻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성명학이 갖는 한문의 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인데, 뜻글자인 한문이 소리글자로 읽혀지고 만다는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바로 과거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관습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도 성명학이 이러하니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현대인의 사고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다. 더군다나 한문 자체를 피하고 순 우리말로 만든 이름들이 적지 않고 또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성명학의 의미는 없다 하겠다.

② 姓名學에서 따르는 劃數

성명학(姓名學)에서 특정한 한자(漢字)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획수(劃數)와는 다르게 구분해 놓았다.

예로, 수(洙) 자는 총 9획으로 된 글자인데, 성명학에서는 그 획수를 10획으로 본다. 그건, 수(口) 변(邊)의 3획을 그대로 쓰지 않고 수(口)자의 원형인 수(水)자로 봐서 4획으로 친다는 것이다. 난(蘭)자도 마찬가지다. 초(口)변의 4획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원형인 초(艸)자로 봐서 6획으로 친다는 것이니 그 글자의 획수는 총21획이 아니라 23획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대개가 한문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성명학에서는 그 이름의 좋고 나쁨이 음양오행에 달려 있고, 거기에 총 획수를 구분하여 그 획수의 한자 한자마다에 의미를 붙여 놓고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획수가 한 글자만 틀려도 그 운명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 이름의 획수가 18획이다 할 때, 그 뜻은 발전격(發展格) 융창운(隆昌運)인데, 한 획수가 다른 19획의 의미는 성패격(成敗格) 병악운(病惡運)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획수 하나를 잘 못 해석하면 좋고 나쁨의 극을 달리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획 하나에 그런 엄청난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운이 정말로 있다는 것일까. 위에서 지적한대로, 그저 일반인들이 수(洙)자를 9획으로 보는데 굳이 성명학에서만 수(口)변을 수(口)변의 4획이라면서 10획으로 본다는 것은 좀 억지 논리라 본다. 이는 과거 성명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들과는 좀 다른 논리를 세워야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인 것은 가볍고 위엄이 서지 않는다는 논리로 그 의미를 확대 했으리라고 본다.

이는, 한문의 획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불리는 순 한글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순 우리글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획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의미를 붙여 놓은 것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더욱이 이름만 별난 획수를 더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는 더 우습기만 하다.

또한 성명학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문을 사용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책들이 어려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인데도 한문으로 써 놓았으니 하는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숫자를 산수처럼 그대로 쓰면 쉽게 이해 될 표현을 고어체(古語體) 문장으로 쓰고, 그것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한문들까지 온통 섞어서 써놓았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책, 수준 높은 책들인 척 한다. 물론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자들이 섞여 있는 책만 봐도 어려운 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문과 책의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옛날의 육갑(六甲)이나, 간지(干支)는 그야말로 몇 가지만 외우고 나서 그걸 대입만 시키면 되는 일로써 현대의 고등 수학처럼 어려운 학문도 수준 높은 철학도 아닌 것이다. 다만 남들이 알지 못하니 높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③ 姓名學의 陰陽五行 否定하기

오행(五行)의 원리(原理)를 보면 목(木)은 화(火)를 생(生)하고, 화(火)는 토(土)를 생(生)하고, 토(土)는 금(金)을 생(生)하고, 금(金)은 수(水)를 생(生)하고, 수(水)는 목(木)을 생(生)한다고 한다. 또한 목(木)은 토(土)를 극(剋)하고, 토(土)는 수(水)를 극(剋)하고, 수(水)는 화(火)를 극(剋)하고, 화(火)는 금(金)을 극(剋)하고, 금(金)은 목(木)을 극(剋)한다고 한다.

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대로 연결되면 상생(相生)한다는 말은, 나무는 불을 만나면 활활 타니 좋고, 그 재는 땅의 거름이 되니 좋고, 그 땅에는 쇠가 있으니 좋고, 물은 쇠를 녹이니 좋다는 논리며, 목(木), 토(土), 수(水), 화(火), 금(金)으로 하나씩 건너서 연결되면 상극(相剋)한다는 말은, 서로 만나면 상반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좋다는 식의 표현대로만 따르지 말고 그 반대로 해석을 해보기로 하자.

즉, 목(木)과 토(土)는 서로 만나면 상극(相剋)한다는데 왜 나무(木)는 물(水)과 불(火)을 만나야만 좋고, 땅(土)과 쇠(金)를 만나면 상극하다는 말인가. 나무(木)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내리고, 나무 또한 쇠(칼)를 만나면 그 나무의 용도는 무궁무진으로 변하는데 말이다. 토(土)와 수(水) 역시 땅에 적당한 수분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땅이고, 수(水)와 화(火)의 관계도 물과 불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물이 있어야 끄고 물 역시 불이 있어야 끓일 수 있듯이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말이다. 화(火)와 금(金) 또한 쇠는 불이 있어야 그 쇠를 녹여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고, 못 쓰는 쇠는 다시 불로 녹여 새로 사용한다. 이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의미인가. 그런데도 누가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으로만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야말로 단순하기 짝이 없던 그 옛날 지식수준이었을 때 만들어진 오행(五行)이라는 논리를 지금과 같은 과학 첨단 시대에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은, 그런 지식들이 아무나 알기 어려운 일이라는 오해(誤解)와 무지(無智)에서 오는 선입견(先入見)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④ 달라지는 ‘이름’ . 2006 풍속도

이름 바꾼 삼순·삼식이 행복할까. 개명신청 한달..10명중 9명에 새이름 '놀림감 이름' 바꾸기 쉬워진다.

드라마 속 삼순이는 삼순이로 남았지만, 현실 속 삼순이와 삼식이들은 개명신청서를 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범죄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개명신청은 2배가 넘었다. 남다른 이름으로 본의아니게 주목받으며 살아온 사람들. 이들의 특별한 이름은 드라마 속 삼순이의 불평처럼 ‘부모가 무책임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돌림자나 한자뜻에 연연한 탓이 더 크다.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며 함부로 개명하면 안된다는 오래된 충고에 대해 이들은 말한다. “이름은 운명이 아니다.

평생 놀림받을 운명이라면 몰라도” . 2006년 이름 풍속도를 돌아봤다.

#이름은 운명이 아니라 이미지다

인터넷 작명소에서 둘째 아들 ‘승준’의 이름을 지은 아빠 이정은씨(35)는 돌림자를 포기했다. 여성스러운 이름 때문에 늘 고민했던 이씨는 작명조건에 돌림자 대신 남자느낌이 나는 ‘준’자를 꼭 넣어줄 것을 주문했다.

스물여덟의 예비 엄마 채희영씨는 느낌이 좋은 이름을 찾고 있다. 뜻도 중요하지만 평생 더불어 살 이름이니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채씨는 “부모세대는 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을 중요시했지만 신세대 부모들은 어감과 남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씨는 “친척 중에 시부모님이 돌림자를 고집하며 너무 고전적인 이름을 지어와 아이 엄마가 단식투쟁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요즘 신세대 부모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영어 표기와 발음상 무리가 없는지도 고려하고 있다. 작명소에서도 여성이름에 많이 들어갔던 ‘은(eun)’자를 잘 쓰지 않는 추세다. 모음이 두번 이어지는 표기가 콩글리시에 가깝고 외국인들이 정확히 발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유진’ ‘민아’ 등은 흔해 보이지만, 영어이름으로도 함께 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모은다. ‘린’ ‘빈’자는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여성은 물론 남성이름에도 많이 쓴다.

#이름은 브랜드다

연예인들에게 이름은 확실한 전략이고 브랜드다. 촌스러운 본명을 가리기 위해 예명을 쓰던 시대는 갔다. 가수 ‘비’의 이름은 프로듀서 박진영씨가 녹음할 때마다 비(雨)가 내렸다는 이유로 지었다. 한국과 아시아, 미국을 넘나드는 그의 활약을 보면 훨훨 나는 ‘비(飛)’자가 떠오른다.

‘비’는 연기를 할 때는 본명인 ‘정지훈’으로 돌아온다. 음악과 연기, 양쪽에서 나름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이름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같은 이유로 강타, 에릭 등도 드라마에서는 본명을 사용했다. 싸이, 별, MC몽의 본명은 각각 박재상, 김고은, 신동현으로 촌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각자의 개성과 느낌을 살린 예명으로 팬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이민호

라는 이름대신 ‘봄’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VJ 봄은 아예 ‘붐업(Boom up)’이라는 노래까지 발표했다.

회사원 손영훈씨(31)도 아이에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 줄 계획이다. 비즈니스를 해 보니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 이란다. ‘영훈’이라는 이름이 흔해 상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했다며, 첫인사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름을 짓고 싶다고 했다. 각종 비즈니스 전략서에는 “이름을 잘 기억하라”는 주문이 빠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충고한다.

#이름은 놀이다

요즘 네티즌은 이름을 갖고 논다. 할리우드의 섹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졸음에 겨운 여인(안자려나 졸려)이 됐고,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반창고 브랜드(대일밴드 베컴)가 됐으며 최신형 아파트 ‘e-편한세상’은 이기적인 아파트(지편한세상)가 됐다.

몇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아이디 놀이’는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그때 새로운 패러디와 유머를 버무려 네티즌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남의 이름으로 하는 패러디지만, 인터넷 초기에 제2의 이름이라며 멋진 단어로 아이디를 만들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요즘엔 ‘멋있는 아이디’보다 ‘재밌는 아이디’가 뜬다.

족보용 이름은 가고, 이름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로 변하고 있다. 집안 어른들의 생각보다는 나와 커뮤니케이션할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졌다. 누군가에겐 운명, 누군가에겐 패션, 누군가에겐 브랜드인 이름. 당신에게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이름전문가 배우리씨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산 명사들의 이름도 분석해보면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수) 15:40 [경향신문](#)

IV. 逆 四柱

1] 四柱의 理解

사람의 생년·월·일시의 간지(干支).

사성(四星)·강서(剛書)·경첩(庚帖)이라고도 한다. 이를 풀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지나온 생애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 이를 사주점이라고 한다. 사주란 사람을 집에 비유할 때, 생년·월·일시를 집의 네 기둥으로 본 것이다. 간지는 두 글자씩 짝이 되므로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도 한다. 보통 운명이나 숙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사주는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계산하므로 60갑자, 즉 육갑(六甲)으로 표현된다. 사주가 그 사람의 운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를 분석·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짚어보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 '사주를 본다'는 것이 바로 추명이다. 추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숙명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하는 개운법(開運法)을 쓴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 부모형제·부부·자녀 등 대인에 관한 것, 관운(官運)·재운(財運) 등 운수, 그밖에 건강·상벌·재앙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정적인 것도 있으나 10년이나 1년을 단위로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낸 사주를 바탕으로 개운법을 써서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는데 좋은 이름, 길한 방위, 잘 맞는 궁합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다. 사주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인간사를 풀어보는 것이지만 이를 맹신하게 되면 자칫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폐단이 있다.

(다음 백과사전)

2] 反論

① 富者는 겨울에 태어난다

우리나라 부자 10명 가운데 4명이 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정보 제공업체인 미디어에쿼터블에 따르면 현재 국내 1위 부호인 이건희 회장이 1월에 태어난 것을 비롯해 10대 부호 가운데 약 40%가 겨울에 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3위인 롯데 신동빈 부회장과 신동주 이사는 각각 2월과 1월에 태어났고 2월생인 구본무LG그룹 회장과 1월생인 서경배 태평양 사장까지 포함하면 10대 부호 중 절반이 겨울에 출생했다.

또 자수성가형 부호 29명중 약 60%가 겨울에 태어났고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역시 각각 2월과 11월에 출생했다. 그밖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양윤홍 유일전자 사장, 조중훈 한진 회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도 겨울에 출생했다.

에쿼터블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잡지 '포천(Fortune)'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자수성가형 젊은 부호 40명 가운데 10명 이상의 별자리가 모두 염소자리였다. 염소자리는 12월23일에서 1월20일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아마존(Amazon)의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가 염소자리에 해당된다.

(미디어에쿼터블)

② 위 ①에 대한 筆者의 反論

12개월 중에 겨울이 11, 12, 1, 2 월을 말한다면 이는 12개월 중 4개월로써 1년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10명 중 4명은 굳이 경제인만이 아니더라도 법조인, 군인 등등 어느 모임이든 간에 그 인원의 3분의 1은 당연히 겨울에 태어난다는 말이다.

거기에 음력이라는 부분까지 글쓴이의 유리한 쪽에 갖다 붙이면 33.3%에서 40%란 수치는 바로 나오는 수치인데 어찌 부호만 겨울에 태어난다는 미신적인 말을 저렇듯 만들어 놓을까.

③ 四柱로 사람의 運命을 알 수 있는가!

사주란, “사주의 이해” 에서 설명 하였듯이 생 년, 월, 일, 시 즉,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시간을 놓고 거기에 맞춰 음양오행을 정해놓은 공식에 대입하여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지난 옛 이야기를 예로 들어 그 아이러니컬한 내용을 지적해보기로 하자.

조선의 영조 임금 은 자신과 똑같은 사주를 갖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그를 찾아 오라 했단다. 임금은 자기 하나인데 똑같은 사주를 갖은 사람은 무얼하며 사는지 궁금해서 였다. 결국은 웬 초라한 촌부가 불러 왔기에, 영조는 그를 보고, 너는 사주를 믿느냐 하였더니, 그는 믿는다 하였단다. 이에 영조는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임금은 나 혼자인데 같은 사주를 가진 너는 무엇 때문에 그리 행색이 초라하냐?"고 묻자 그 농부왈, 자신은 자식을 여덟 형제를 두고 벌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며, 그 여덟의 자식은 팔도의 도지사 와 같고 각 벌통의 벌은 이 나라 백성의 수와 맞먹지 않겠느냐고 대답, 그 말이 그럴듯하다 하여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헌데 그 비유법에는 늘 붙이는 이의 재치에 따라 긍정을 유도해 내기 마련이다.

만일 그 농부가 소를 키운다면 소에 난 털이 백성의 수만큼 된다 하여도 그럴듯하다 했을 것이고, 나무를 키운다 하여도 그 나무의 수나 매달린 열매 혹은 그야말로 이파리를 비교한다 하여도 그럴듯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듯이 운명에 대하여 말할 때, 웬만한 인생 경험자라면 어느 문제든지 간에 그럴 듯한 내용으로 포장하여 전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냉철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결국은 같은 사주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임금님이요, 한 사람은 촌부인데, 그 둘이 밀장난이 아닌 현실로 볼 때 과연 같은 삶 또는 운명이라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으로 볼 때 동, 식물 역시도 그 삶이 있으니 그 동 식물에게도 사주를 인정하지 말란 법 없다 한다면 사람은 고작해야 자식을 하나 둘 낳는다면, 동물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으니 이를 어찌할까. 사주의 시를 나누는 시간의 개념이, 지금의 시간으로 두 시간이므로 그 시간,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물들의 운명 역시 같을 수 있을까.

또한 같은 시를 갖고 있는 사주를 갖은 쌍둥이 형제라도 한사람은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거나 다치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현실 또한 적지 않으니 어찌 사주를 믿으라 하겠는가 말이다. 간혹 쌍둥이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 유전자 가 많이 같고 생활환경이 비슷하여 발상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일 뿐, 위와 같이 그 사주적인 운명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주란 그저 태어난 년월일시일 뿐 거기에 대입시켜 논 의미는 그저 이현령비현령이라 할 것이다.

④ 함숨을 왜 보는가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사주가 안 좋다더라, 또는 좋다더라."는 말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접한다.

한마디로 궁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는 것인데 그 말들을 하기 전에, 도대체 궁합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논하는 것일까.

그것은 옛 사람들이 해를 열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그 해마다 의미부여를 해놓고는 거기다가 또 음양오행을 붙여 놔 상생이니 상극이니 라는 논리를 붙여 댄으니, 그런 내용의 결과로만 본다면야 그럴 만도 하다 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들이 정해 놓은 띠에 따라 성격과 운이 같다고까지 풀이한데 수긍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같은 학년이 있다고 하자. 한 학년에 약 500명쯤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집단이다. 즉, 띠가 같다는 말이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사주로 말한다면, 그 모든 학년의 사람들이 과연 자기와 모두 운명이 같다고 인정하고 살아야만 할까?

그 띠라는 것을 해석해 놓은 사주의 예로, 쥐 띠가 가을에 태어났다면 먹을 걱정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오곡이 풍성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많을 때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 쥐에게 있어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그렇게 동물과 사람이 같지는 않지 않느냐는 당연한 결론은 뒤로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남아메리카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계절은 남미와는 그 반대에 있으니 그곳의 쥐가 수확의 때를 맞았다고는 하지 않았을 테고, 혹시 그 띠 중에는 이구아나 또는 펭귄의 띠로 바꾸어 놓지는 않았을까.

지식이 높은 21세기에도 띠에 대한 확대 해석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⑤ 四柱 풀이를 보면

사주 책들을 풀이 해 논 것들을 보면 모두가 지난 일들이다. 즉,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난 후에 풀이를 해 놓은 것들이다. 다시 말해 영화배우나 가수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아는 사실을 풀이로써 연예인 사주라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유명한 재계 인사 등과 같이 국민 모두가 알 사람들을 풀이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었다는 식이다.

혹 아무것도 모르게 풀어보라는 사주 풀이가 그 당사자의 직업이 밝혀지며 시원치 않다는 말을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단니까." 식으로 누더기식 풀이를 따라 붙인다. 이 말은 바로 사주라는 자체가 바르지 않은 사실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즉, 남들이 이미 만들어 논 특허품을 보면 누구나가 "아 저런 것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미 아는 직업을 말해 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특허품인 창의력처럼 사주 풀이는 그저 말 갖다 붙이기 식의 이현령비현령이다.

V. 逆 風水地理

가게 터가 좋은지

동네 어귀에 새 가게가 또 들어선다.

인테리어로 맘 흘리는 인부들의 모습이 한창,

같은 장소에서 불과 일 년도 안 되어 치르던 공사를 기억한다.

그 전의 집은 식당, 그 앞엔 화장품 가게였고

이번에 들어설 집은 전에도 있었던 치킨센터다.

먼저 번 집, 만만치 않았을 공사비가 안타깝다.

내가 본 불과 몇 년 새

같은 집에서 저리 바뀌는 직종이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려지질 않는데

이번 역시 또 몇 달이나 같까.

1] 風水地理의 理解

땅을 살아 있는 생명으로 대하는 전통적 지리과학.

만물이 기(氣)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만물 중의 하나인 땅도 지기(地氣)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기에 대해 음양과 오행, 그리고 주역의 논리로 체계화한 것이 풍수지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서양의 지리(geography)가 지리의 영역을 차지하기 이전까지의 진정한 전통지리는 풍수지리였다. 19세기까지 실학자들의 지리관과 동학과 같은 개혁사상의 밑바탕이 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미신으로 격하되었으며, 이러한 외세에 의해 왜곡된 풍수지리가 제 모습을 찾기 전에 다시 서양의 지리에 의해 묻혔으며, 풍수지리는 풍수라는 봉건시대의 속신으로 버려지게 되었다. 풍수지리는 인간이 일찍부터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터득된 지혜에 근본을 두고 있다. 특히 농경을 시작한 후부터 작물의 재배와 성장에 관계되는 땅의 성격과 분포의 차이를 기의 차이로 이해하면서 풍수지리는 이론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에 춘추전국시대 이후 기의 변화와 동정을 음양으로 파악하는 음양가의 성장이 인간의 개별 경험적 수준에 머물던 기에 대한 인식을 학문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렸으며, 이후부터 풍수지리서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눈·바람 등의 기후현상, 토양, 수분, 지형, 생태계내의 물질순환 등 모든 자연현상을 기의 작용으로 파악했다.

현존하는 풍수지리서 중에서 최고(最古)의 것으로는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지은 <금양경 錦囊經>이다. 한반도에서도 일찍부터 땅에 대한 기의 인식이 발달했으나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학문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땅에 대한 독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가 전래된 후 중국과는 다른 우리식의 풍수지리를 발전시켰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우리의 독자적 풍수서가 저작되기도 했다.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동외산선문(桐畏山禪門)의 도선(道詵)이라는 선승에 의해 한반도 풍수지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도선에게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보사상(裨補思想)으로서 중국과 다른 한반도 풍수지리의 특성이다. 즉 주어진 땅의 지기에 의지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거나 가산(假山)을 만들고 사찰과 탑 등의 입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땅의 지기를 인간의 삶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비보로서 한반도 풍수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려시대에는 비보문제를 전담하는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보와 같은 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고려시대 풍수지리에서 지기최왕과 그에 따른 국도의 천도문제를 제기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풍수지리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려의 도읍인 개성을 벗어나기 위해 계룡산·모악산 등과의 비교를 통해 결국 한양이 도읍지로 선정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 후에 새로운 도읍 선택에 골몰한 것은 고려시대에 문종·숙종·예종·공민왕 등이 모두 풍수지리 논리를 고려의 개혁에 이용하려 했던 전통을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태조는 왕조의 정통성 문제를 민중들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내린 풍수지리를 이용해 정면 돌파한 것이다. 즉 지기가 왕성한 한양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앞날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어 신생왕조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성종 이후 문물이 안정되면서 개혁적 풍수지리의 사상성은 점차 몰락하고 좋은 터를 골라 가문과 개인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수단으로 풍수지리를 이용함으로써 풍수지리는 이기적인 터 잡기 잡술로 여겨지게 되었다. 타락한 풍수지리를 비판하고 건강한 지리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외세의 침략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풍수지리는 오늘날에도 저속한 옛 관습을 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지기로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인간이 어떻게 잘 조화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땅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스스로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이 조화해서 살아야 한다. 인간이 조화하기 어려운 땅이 인간의 눈에는 좋지 못한 땅으로 보일 뿐이다. 자연 그 자체로서는 선악의 판단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다. 땅과 조화할 수 있는 기반은 인간이 땅의 기를 느껴서 자신과 잘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으므로 점차 자연과 멀어졌고 이에 따라 인간의 본능적인 능력으로서의 기감(氣感) 능력은 상실되었다. 기감이 상실된다면 풍수지리의 이론체계는 쓸모가 없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 만들어졌다. 직접 땅의 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의 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간접적인 지기에 대한 접근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땅의 모양을 눈으로 봄으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국론(形局論)이다.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등 어떤 지역의 땅을 호랑이·소 등의 짐승이나 매화·연꽃 등의 식물, 또는 사람 등의 모양으로 규정하고 땅에 비유된 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생기(生氣)가 모이는 혈(穴)을 찾는다. 학이 등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면 알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된다. 만약 생기를 느낄 수 있다면 굳이 학 모양을 그리지 않고서도 알이 놓이는 곳을 기감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기가 수반되지 않은 형국론은 공허하며 이런 점에서 명당을 찾는 일은 땅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지 않고서 단지 어떤 도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기를 바탕으로 한 형국론은 땅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는 풍수지리의 정신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 풍수지리는 형국명이 붙지 않은 곳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길지(吉地)를 찾는 노력으로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좌향론(坐向論)·정혈법(定穴法) 등의 경험적 지기인식을 위한 이론체계가 있다.

간룡법은 우리 땅의 연원인 백두산, 즉 태조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을 뒷산, 즉 주산(主山)에 이르는 산맥이 힘 있게 끊어지지 않고 잘 달려왔는가를 보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지기의 흐름인 산맥을 용(龍)으로 본다. 생기가 넘치게 뽐은 용을 보통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간룡의 요체는 조산(祖山)에서 주산을 거쳐 혈장에 이르는 맥의 연결이 생기발랄한가를 보는 것이다. 장풍법은 주산을 중심으로 명당주변의 산세를 살피는 방법이다. 명당주변의 산세가 포근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무정하게 돌아앉았거나 외면하는 산세는 좋지 못하다. 가장 전형적인 장풍법은 사신사(四神砂)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다.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남주작(南朱雀)·북현무(北玄武)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는 서울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서울의 명당을 주재하는 것이 북현무인 주산이며, 북악산이 이에 해당된다. 북악산은 다시 조산인 북한산에서 맥을 이어받았다. 주산은 혈장 뒤에 우뚝 솟아 위엄을 갖추고 명당의 얼굴이 된다. 좌청룡·우백호는 주산의 좌우에서 주산을 호위하면서 명당을 감싸는 모양을 갖추어야 좋다. 서울에서의 청룡은 낙산, 백호는 인왕산이다. 남주작은 조산(朝山)인데 말 그대로 임금인 주산에 대해서는 신하와 같은 산으로서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듯 한 모양이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관악산이 이에 해당하는데 조산으로서는 다소 기가 센 것이 흠이다. 그리고 주산과 조산 사이에 책상과 같은 산이라 하여 나지막한 안산(案山)이 있는데 서울 남산이 이와 같은 산이다. 장풍법을 살핍으로써 명당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사신사의 구조가 만드는 넓이가 크면 도읍이나 고을 및 마을이 입지할 수 있는 명당이 되고 국면이 협소하면 읍택이 입지하는 땅이 된다. 즉 풍수지리에서 읍택과 양택 풍수지리의 구분은 오직 명당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다. 간룡과 장풍법을 통해 대략적인 명당의 범위가 확정되면 어느 부분이 생기가 모이는 혈처(穴處)나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혈을 정하는 것이 정혈법이다. 땅에도 몸과 같이 경락(經絡)의 체계가 있고 혈이 있다. 이 혈기는 경락을 타고 흐르던 기가 잠시 멈추는 기의 정거장과 같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한방에서 침을 혈에 놓게 되는데 혈을 벗어나면 효험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명당에서 혈을 찾는 것도 침구술과 같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명당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그만큼 정혈은 어려운 것이다. 서울의 혈처는 경복궁이 된다. 명당의 중심이 혈이기 때문에 도읍이나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이곳에 입지하게 된다.

간룡법·장풍법·정혈법이 주로 산, 즉 용맥에 관련된 사항에 주목하는데, 풍수지리란 말에서 이미 상징되듯이 물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풍수지리에서 중시되고 있다. 명당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물길을 보는 것이 득수법이다. 자연에 직선의 날카로움이 드물듯이 풍수지리에서도 조화와 부드러움을 좋아한다. 산의 흐름도 부드러우면서 힘 있는 모습으로 꿈틀꿈틀 흘러야 하지만 물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빠르게 흘러서는 안 되며 뱀이 기어가는 모습처럼 구불구불 유장하게 흘러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산의 흐름과 조화되어야 한다.

자연의 운행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가 그러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명당에 배치하는 기능들의 방향에 따라서 기의 영향도 상당히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입지하는 존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좌향론이다. 좌란 혈의 뒤쪽 방향을 말하며, 향이란 혈에서 앞을 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좌향은 지기와 천기(天氣)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험적 지기의 인식을 위한 논리는 서로 조화되고 협동적으로 지기 파악에 사용된다. 그러나 역시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것은 땅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살아 있는 것은 그 특징을 알아서 적절히 대할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그 개성을 무시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이 대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다는 논리이며 이 양자의 존속을 조화와 균형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실제로 땅의 해석에 동원되는 모든 이론체계는 음양의 상보적인 이해와 오행의 순환적 변화의 원리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어 조화와 균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풍수지리는 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은유적·비유적인 표현을 빌리기 때문에 현대과학의 엄밀한 서술양식과 비교해 소박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사실, 특히 생태학과 같은 지식체계에 풍수지리의 논리가 매우 잘 부합된다. 풍수지리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자연에 대한 지혜의 축적이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부분적 확실성에 치중하는 데 비해 풍수지리는 포괄적이고, 과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도하는 사상이 될 수 있다. 현대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죽음을 염려한 것이고 지구의 종말에 따른 인간의 몰락을 걱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과학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확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과학 지식의 확대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지식의 응용으로 자연을 이용하여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 더욱 열중했기 때문에 과학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문제가 급격히 커져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왜곡된 성장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데 풍수지리와 같은 유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상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백과사전 韓東煥)

2] 反論

① "과연 大權을 잡을 수 있는 뒷자리일까?"

지난달 31일 별세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부친 이홍규씨(97) 뒷자리에 전국의 관광객들과 지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예산의 선영에 터를 잡은 이 후보 부친의 뒷자리가 대권 운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후보가 이곳에 뒷자리를 쓴 이후 '명당'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들고 있다고 한다. 묘역 인근에서 과수원을 하는 김모씨(51)는 "처음에는 충청도 차량만 보였는데 뒷자리 위치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울·경기·경북 등 전국에서 관광버스나 25인승 버스를 대절해 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후보 부친의 묘는 아직 때가 제대로 입혀지지 않아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광객들은 이 후보 부친 묘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대권과 관련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눈다. 하지만 묘지를 찾은 사람들은 이 후보 부친의 묘가 유명세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고 말한다.

충북 청주에서 온 김모씨(51)는 "찾아올 때만 해도 호화로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동네 언덕에 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묘지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지관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묘의 좌를 보는 나침반을 놓고 이 후보 부친의 묘가 제대로 안장됐는지 여부를 관찰한다. 일부 지관들은 수맥을 보기 위해 쇠 작대기를 들고 묘에 올라간 후 살피기도 한다.

풍수지리가 박서복씨(62)는 "풍수에서 대통령 후보는 명당이 낸다는 말도 있다"면서 "지관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② 大檢 風水地理 騷動

대검찰청이 최근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며 청사 정문 쪽을 향해 있던 지하주차장 제1출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차량을 본관 정면 출입구로 우회해 들어가는 제2출입구를 이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 풍수지리학자가 대검의 위치와 시설 등을 둘러본 뒤 "정문 쪽 주차장 출입구와 정문 옆의 보조 철문으로 기(氣)가 새나가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해 정문 쪽 주차장 출입구 폐쇄 공사를 하고 있다.

대검은 99년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이 청사 로비에 설치했던 법과 정의의 상징인 해치(해태·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상을 김 전 총장이 옷로비 최종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뒤 흉물이라고 판단해 청사 밖으로 옮긴 적이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계속된 검찰 수난의 원인이 혹시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따라 제1출입구를 플라스틱 위장벽으로 폐쇄해 비상시에만 사용토록 하고 보조문은 화단으로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정문 쪽 지하주차장 입구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폐쇄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위의 내용 ①과 ②에 대한 필자의 반론은 아래 "③ 뒷자리가 안 좋으면 자손이 안 좋다는데" 에 그 의미를 둔다.

③ 뒷자리가 안 좋으면 子孫이 안 좋다는데

풍수지리 대가라는 사람에게 뒷자리를 쓰고도 시간이 지나서 그 뒷자리에 대하여 또 다른 풍수가에게 물어보라. 분명코 그 대답은 뒷자리가 안 좋다는 말이 또 나올 것이다.

그것은 뒷자리의 좋고 나쁨보다는 이미 뒷자리를 대하는 풍수가의 속내가 오로지 상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설령 풍수가의 말대로 시신이 물에 젖거나 썩었다한들, 죽은 혼이 있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이 시대에도 믿을까. 결국 여러 해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시신은 자연의 섭리대로 당연히 썩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당장 눈앞에 그 썩은 시신을 보는 사람의 그 섬뜩한 맘 앞에 풍수가들의 장삿속 말인 줄도 모르고

후손들의 안 되는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 부추겨 대니 어느 누구라도 그 안 된다는 말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왜 꼭 후손만이 해당할까. 그것이야말로 후손이라야 돈을 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또한 왜 시신이 마른 땅에서 안 썩어야 좋다는 논리는 무슨 근거가 있고 썩은 시신이 안 좋다는 근거는 뉘냐 말이다. 그렇다면 시신을 불에 태워 아예 없애 버린

화장한 자손들은 다 날벼락 맞고 살았단 말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조상을 모셔왔다. 그렇다고 조상을 모시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 건 아니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 그 자체는 좋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변질되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답답하다는 말이다.

우리들은 늘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후손에게 해가 온다는 말들을 듣고 산다. 그러나 그건 세상을 떠나려는 자들의 잘못된 수혜의식이 빚어 낸 편협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하긴 그 험박에 못 이겨 너도나도 제사를 지내는 지도 모른다. 자기가 잘못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런 비유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구한말, 정말 못살던 시절에 많은 이들이 하와이 남미 등으로 돈 벌러 집을 떠나면서 반노예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그들의 가장 큰 화한과 부담은 역시 성묘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묘지 앞에서 제사는커녕 벌초 한 번 못하고 지냈어도 그들의 후손들은 각 나라에서 2세 3세라는 이름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그 나라의 최고급 인사가 된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조상 묘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후손들이 잘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대 세종 말년에 '어변갑'(세종 초기의 벼슬한 인물)의 아들 '어효첨'이라는 인물은 조정의 풍수설로 논란이 많았을 때, 명당 설을 배척한 인물로 유명하다.

왕이 그 집안의 묘를 알아보게 하니 어효첨의 집안은 명당을 찾지 않고 집주변에 되는대로 묘소를 썼다는 지라, 이에 왕도 명당을 찾아 자주 옮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후 풍수가 들이 말하는, 명당을 찾지 않고 장사 지내는 것을 "어 씨 세상법(魚氏 世葬法)"이라 불렀다 한다. 그 '어효첨'은 죽기에 앞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묘를 쓸 때, 명당 따위는 구하지도 말고 적당한 길옆이라도 좋다고 말하니, 그 자손들이 따랐다 했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 형제는 같은 해에 과거급제를 하여 그 중 '어세겸'은 좌정승을 지냈고, 동생인 '어세공'은 판서를 지냈다. 3대가 미신을 타파하고 풍수설을 멀리한 집안으로 조선시대를 빛낸 인물들이다.

공자(孔子)는, “물 또는 불이나 개미 등의 벌레 따위로 인해 근심이 있어서 개장(改葬)하는 것은 부득이 하나, 잘 알지도 못하는 지관(地官)의 그릇된 견해로 길지를 버리고 개장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고 하였다. 이는 묘지를 둘러싸고 행해지는 지관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나무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VI. 逆 觀 相

상판대기가 좋다.

厚大耳, 福 코

만사형통에 근심 걱정이 없는 相이다.

헌데 그는 거지다.

1] 觀相學, physiognomy의 理解

얼굴모습이나 체형을 심리적 특성과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학문.

이 같은 연관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신빙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상학은 때때로 점이나 손금보기 수준의 사이비 학문이나 사기행위로 여겨진다.

관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상학을 통해 외모만으로 성격을 판별하거나 몸매 혹은 얼굴생김에서 직관적 인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관상학은 그 역사가 매우 길어 고대와 중세에도 이에 관해 많은 서적이 씌어졌다. 위로 치켜진 눈, 크고 넓은 얼굴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중후군처럼 유전적 결함이 신체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관상학은 생리학이나 생화학의 한 분야로 발전되었다.

또 외모에서 직관적 인지를 얻어낸다는 두 번째 측면은 점성술을 비롯해 기타 다른 점술과 연결되었고 중세의 공상문학 속에서 크게 확대·과장되었다. 호메로스, 히포크라테스 등이 쓴 초기의 고전문헌에는 관상학이 고대 실용철학의 일부로 등장한다.

관상학에 관해 최초로 체계적인 논문을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6 장(章)에 걸쳐 연구방법을 고찰하면서 주로 강인함과 나약함, 천재성과 우둔함 등의 기질을 나타내는 외모나 성격의 일반적 특성 등을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색, 머리카락, 체형, 손과 발, 걸음걸이, 목소리 등의 외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성격의 특성을 고찰했다. 예를 들면, 코에 관해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두툼한 주먹코를 가진 사람은 우둔하고 욕심이 많고, 코끝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개와 같이 성미가 급해 쉽게 화를 내며, 등골고 큰 뿔코를 가진 사람은 사자처럼 관대하고, 가늘고 휘어진 코를 가진 사람은 독수리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유베날리스, 수에토니우스, 플리니우스 등 로마의 고전작가들은 관상학을 실제로 작품에 인용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같은 신학자들은 그들의 저서 속에 이를 암시하고 있다. 초기의 고전 관상학은 주로 서술적이었으나, 중세 후기에는 예언적이며 점성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전개되었다. 특히 이때 나온 논문들은 예언적 민간전승과 마술을 다루는 등 종종 주제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어 연금술사였던 아르라지 아베로에스 같은 아라비아의 작가들은 의학과 관상학에 관한 문헌을 썼다. 또 중국에서는 전국 시대부터 인상으로 운명을 점치는 관상술이 발달했는데 이는 음양설에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중국과학과 관련이 있다.

관상학은 아비체나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존 둔스 스코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해부학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관상학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18, 19세기에는 관상학이 범죄성향을 추정하는 수단으로 제안되기도 했으나, 실험 결과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20세기에는 단지 과거의 학문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다음 백과사전)

2] 反論

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殺人할 相이라는데

스포츠 일간지에 연재하는 관상 코너를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잡힌 마이클이라는 외국인을 보니 눈과 눈썹이 거의 붙어있는 걸로 봐서 그런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국한적인 지면상 설명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단답식으로 적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짧은 지식표현으로 남의 운명을 운운하니, 오히려 글쓴이가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아무리 관상에 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관상의 의미해석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 연역추리법 혹은 귀납추리법적 사고 자체를 모르는 발상인 것 같아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다. 즉, 살인을 한 마이클의 눈썹과 눈이 붙어있으니 그런 눈과 눈썹이 붙은 사람은 모두 살인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니, 키 큰 사람은 다 농구를 잘 한다? 라는 논리지 않은가 말이다.

더욱이 관상적인 운명론 자체를 이해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 생김새 만으로만 볼 때도 그 구조적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적 잣대의 해석을 갖다 붙였다는 아이러니 역시 이해할 수 없으려니와, 신문에 칼럼을 쓸 정도의 관상가라면 꽤나 지적인 수준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을 텐데도 위와 같은 수준이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 하겠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어느 책이든 관상에 관하여 입에 대한 설명으로 입가 즉, 입 꼬리가 U자 형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복 있는 상이라서 재물을 모으고, 컵을 엮어 놓은 것처럼 입 꼬리가 아래로 향한 입은 복 없는 상이므로 재물은 커녕 빈천하게 살 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들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우연히 입 꼬리가 올라간 소수의 사람이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을 보고 갖다 붙인 난센스에 불과한 일이다.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에

알린 히딩크 전 감독이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의 입을 유심히 보면 그는 위에서 말 한대로 입 꼬리가 아래로 향한 후자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빈천한가. 그의 아버지 역시 대통령을 지낸 집안이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미간(眉間)이 좁으면 속(마음)이 좁다고 하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젊어서는 대개 눈썹 사이가 좁다. 이는 눈썹의 솔이 많다보니 그러하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솔이 줄어 가듯이 눈썹의 솔도 적어지는 고로 미간에 난 잔 털이 빠지고 결국엔 눈썹 안쪽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이든 노인들을 보면 대개가 눈썹의 가장자리 양쪽은 진한데 미간의 사이는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젊어서는 안 그렇던 모습이, 노인이 돼서 팔자 눈썹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젊어서 눈썹의 사이가 좁으니 마음이 좁고, 넓으면 이해심이 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젊은이들보다야 노인들이 인생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그 이해의 폭도 넓은 것이니, 좁다는 사실 만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일은 옳지 않다 하겠다.

② 故 이주일 씨 觀相과 運命

이십 년전쯤 텔레비전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등장을 했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행시켰으니 말이다.

그는 그 못생긴 탓으로 곧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인기를 얻은 데에는 그의 우스꽝스런 그 당시 몸짓도 있었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의 얼굴이 가히 코미디 그 자체였던 것이었으니, 그가 바로 얼마전 폐암으로 타계한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다.

그가 유명했던 당시,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그를 한 십 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화장실에 처음 갔을 때 나던 냄새에 비해 조금 지나면 그 냄새를 모르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가 못생겼다는 인식은 사라지고 그냥 거기에 코미디언 이주일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 그가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에 뛰어들더니 결국엔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후 정치가 더 코미디라는 말을 남기고 정치를 그만 두었고 이후 폐암이라는 병과 싸우다 결국엔 숨지고 말았다. 그의 나이 육십 대 초반 일이다.

그의 못생긴 외모는 바로 밀천 안 든 재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태어나 못생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겠지만 또한 그의 노력이 담긴 반대급부로 못생긴 덕을 톡톡히도 맛 본 사람이었다.

인기인이 된 후 이미 그의 못생겼다는 의식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못생겼던 그가 국회위원이 된 후의 모습에서부터는 처음과는 너무도 다른 중후한 신사로 다가와 있었고 더 나아가 숨지기 직전의 그의 모습은 바로 노신사 그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담배를 일찍만 끊어도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대! 그의 말대로 그가 일찍 죽은 이유는 그의 못생겼던 관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또한 사주에 정해지지도 않은, 단지 담배 그것 때문이었다. 그 운명을 바꾼 그 담배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자신 스스로가 피우거나 끊을 수 있는 개인 의지에 달려 있는 일개의 물건인 것이다. 그렇듯이 인간의 수명이란, 점쟁이들이 갖다 붙이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말과는 달리 자신 스스로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환경적 유연 생물체라는 것이다.

운명이란, 주어진 생체시계 안에서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③ 觀相이 存在하는가

관상이란,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재수나 운명 등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필자도 무수한 사람들의 관상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상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구분들은 한마디로 너무 살을 깎다 붙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어느 날 전철에서 무뢰(無賴)하게 누워있는 사람의 관상(觀相)을 보니,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관상대로라면 꽤나 귀(貴)한 상이었다. 코의 생김으로나 후대이(厚大耳)한 상(相) 등, 얼굴 전체는 한마디로 부귀공명(富貴功名)할 상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지였다.

거지는 거지노릇을 시작한 지 3년을 버티기 어렵다는데 그 3년만 넘기면 그 생활은 이미 너무 편하여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0년이 넘는 거지에게서 들은 말이다. 그 전철의 거지 역시 이미 이골이 난 거지로 보였다.

귀가 크면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코 잘 생긴 거지는 있어도 귀 잘 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처럼 귀가 복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애길 것이다. 그런데 TV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장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귀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캄차카반도에 사는 장수 할아버지들의 귀를 보니 남한에 사는 할아버지들에 비해 귀들이 훨씬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혹시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큰 귀가 열을 식혀준다는 의미로 본다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귀 역시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귀가 작은 것이지 무조건 귀가 크면 장수 한다는 말은 우매한 얘기가 아닐까 .

다만 관상을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구조를 가진 사람 즉, 귀 한쪽이 없다던가 아니면 코가 없거나 삐뚤어져 있다던가 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물론 세상에서 좀 제외된 삶을 살아갈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웬만한 정상인들을 놓고, 더 나아가 검은 점 몇 개 놓고 빈천이니 부귀니 하는 말은 단지 어불성설일 뿐이다.

옛날에야 잘 살고 못 사는 구분이 아주 뚜렷했었다. 그야말로 한 번 잘나가는 집안은 대를 잇고, 그 반대로 못사는 천민 역시도 대를 이었다. 그러나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늘 잘 씻고 갖춰진 모습이었기에 군계일화처럼 표가 났을 테고 누가 봐도 관상학이라며 귀공자라 말할 수 있었다 하겠다. 하지만 어디 지금은 그런가 말이다. 못 사는 사람이더라도 잘 씻고 사는 세상이고, 잘 입고 다니는 세상이 된지는 꽤나 오래 되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공부만 잘하면 시험 한번으로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을 유념해 본다면 이제는 정상인들을 놓고 관상에 의해 판단을 하겠다는 일은 이 시대엔 분명코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마이클잭슨의 코를 보더라도 그 코는 작고 짧으며 코끝은 번쩍 들리게 수술되어 있다. 아무리 수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관상에 대해 전해져 내려온 내용대로라면 그야말로 빈천하기 그지없는 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가 빈천한가. 또한 요즘의 우리나라 최고 가수로 인정받거나 내로라 하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 선수들의 귀를 보자, 그들 역시 전해져 온 관상학 내용대로라면 거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화류계의 빈천할 상이라는 발딱 젖혀진 귀, 즉 내륜이 밖으로 돌출한 상들이라는 것을 너무 흔히들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빈천하게 사는가.

혹, 관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풀이해 볼 때, 심장에 질환이 생기면 입술이나 얼굴이 푸르게 변하니 그걸 보고 판단하는 일은 그리 틀린 일은 아니다. 그 외에도 장이 나쁘면 입술이 검거나 빈혈이 심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뒤로하고, 단지 얼굴의 형태만을 갖고 돈 뜯어내기 식 관상이라 함은 이제 이 시대에는 멀리할 과거지사일 뿐이다.

④ 流年部位圖 反論

유년부위도란, 관상쟁이들이 사람 얼굴을 그림으로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각 부위마다 숫자를 표기해 놓은 그림을 말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사람의 나이라는 것이다. 즉, 왼쪽 귀를 시작으로 귀 제일 윗부분을 1, 한 살로 시작하여 귀 아래가 일곱 살, 다시 오른 쪽 귀 제일 윗부분을 8, 여덟 살로 시작하여 귀 끝이 열네 살, 그리고 다시 이마로부터 열다섯을 시작으로 턱 밑까지 각 부분마다 나이를 정해놓아 그 턱 끝이 일흔한 살을 마지막이라고 표현해 놓은 그림을 말 한 것이다.

아마도 옛날엔 일흔 살만 넘어도 아주 고령이었을 테니 그 이상의 나이는 사람도 아니었나보다 현대 지금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중에는 일흔을 넘기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들의 관상은 없는 것인가. 이는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하니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 과거엔 맞았다 치더라도 지금의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맞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또한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 누군가 억지로 묻기라도 한다면, 일흔이 넘긴 나이 연령표는 머리 뒤통수에 있다고 우길까.

또한 관상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얼굴의 턱이 평평한 얼굴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옛날 살기 어려웠던 때의 부자가 통통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그러한 상이 좋다는 것을 말함인데,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나오면 인격이라느니 훗티가 난다느니 했었으니까 그런 그림이 매달려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남녀 모두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와는 다르게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 날씬하여 턱 선이 살아 있는 사람을 건강한 미남 미녀로 친다. 그런데도 관상쟁이들의 그림은 여전히 옛 그림을 달고 근거 없는 잣대로 남을 속이고 있다.

⑤ 十二宮所屬圖 反論

십이궁소속도란, 위 유년부위도의 그림처럼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각 지정해 놓은 부위가 좋고 나쁨에 따라 健康, 財運, 兄弟, 奴僕, 遷移, 官運 등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턱은 말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사람 얼굴엔 턱만 말년일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턱만 늙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고르게 늙는 것이다. 즉, 귀도 늙고 이마도 늙는다. 현대 이마는 어린 시절이라는 幼年으로 보고, 중년 운은 코 주위만 본다면, 그러면 이마에 나타나는 주름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코는 왜 중년에만 중요한 부위란 말인가. 중년에도, 코 이외의 얼굴 어느 부분이던 시간에 똑 같은 나이로 변해 간다. 현대 무슨 각 부위마다 연령이 있고 어느 한 부위를 보고 운을 점친단 말인가.

사람마다 얼굴의 형태가 다르듯이 또한 얼굴마다 그 사람의 특색이 있다. 색소 침착이 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전적으로 평생 얼굴에 티 없는 사람도 있다. 흰 머리칼, 검은 머리칼이 비교적 유전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전인수 격인 이유를 붙여 놓고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행위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⑥ 顔面黑痣圖 反論

안면흑지도란, 위 안면부위도처럼 사람의 얼굴 부위에 나타난 점을 보고 길흉을 점친다는 그림이다.

그 안면흑지도에 나타난 입 밑 부분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나타난 점들이 갖는 운의 풀이를 보면 한 열 개를 그려놓고 그 의미를 나열해 놓았는데, 그 각각의 의미를 떠나 자로 썰 수도 없는 표현들이기에 우습기만 하다. 아무 점이나 놓고 이 그림에 맞다고 해석하면 그럴 뜻하고, 바로 옆의 의미라고 해석하면 그만인 식이다.

관상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전하기식 표현인데 이는 그 옛날 어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어느 얼굴 부위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면, 아마도 관상가들이 그 점을 내세워 좋은 의미를 붙여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시대로 본다면, 어느 여자들은 유행하는 점이 있다하면 일부러 점을 그려 놓고 다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점이란 대개가 사람마다 있게 마련이니 거기에 같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 여러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술로 이용하고 있을 뿐 점은 없애도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유명한 여배우 겸 탤런트의 과거 사진을 보면 오래도록 얼굴에 점이 있었다. 화장을 한 후에도 그리 보였으니 맨 얼굴에는 어땀했겠는가. 그런데 요즘 사진을 보면 얼굴에 점이 하나도 없다. 그저 맑고 깨끗하기만 하다. 현대 그 배우는 점점 더 인기가 높기만 하다. 그런데도 어느 여자 배우들을 보면 아마도 복 점이라고 들었는지 하얀 얼굴에 점을 뭐 묻은 것처럼 달고 산다.

점이 얼굴에 붙은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지금 같이 레이저 치료로 감쪽같이 없앨 수 있는 좋은 세상에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흉하다고 생각하면 없애면 그만이라고 본다.

⑦ 觀相의 性格에 대한 反論

관상을 말할 때, 대개가 영웅상(英雄相), 부귀공명상(富貴功名相), 예술가(藝術家)상, 범죄(犯罪)상, 빈천(貧賤)할상 등 여러 형태로 구분하면서 아울러 성격까지도 얼굴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상에 관한 책들에서 나타난 얼굴 형태를 보면 모두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그 그림을 분석해 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보잘 것이 없다. 그저 만화에서 나오는 좋은 사람의 모습은 대개가 준수하고, 악한 사람은 모나게, 또한 빈천할 상이라야 곤궁하게 보이려 잔주름을 많이 넣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영웅이나 부자들의 관상이 모두가 멋지고 후덕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않다. 그 반대로 범죄인이나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천박하거나 야박하게 생긴 것도 아니다. 이는 뉴스 등 영상 매체나 신문의 사진들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실제 직업이나 생활 수준으로 비교하면서 본다면 더 설명할 것도 없는 일일 것이다.

얼굴이란, 시대에 따라 그 모습들도 달라진다. 얼굴에 관한 어느 전문 연구자의 논문을 보니 옛날 여인의 모습들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었다. 밥을 많이 먹고 또한 질긴 나물 등을 씹는 습관으로 인해 턱이 발달하여 사각턱인 모습을 갖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즉석식 인스턴트 제품들이 나와 많이 씹지 않고도 삼키게 됨으로써 지금의 사람들은 턱의 구조가 작아지고 가늘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관상학 책에서 답습되어 옮겨진 그림이나 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얻고자 하는 일은 그저 불필요한 일일 뿐이다.

또한 예로, 배우들을 보자. 과거 고(故) 허장강 씨 같은 배우들은, 배우 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을 악역으로만 나왔었다. 그 악역이란, 관상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느끼는 공감이 범죄상에 가깝다고 느꼈으니 그를 기용한 것이리라. 현대 실제로 그 허장강 씨의 삶을 보면 그는 악한(惡漢)도 아니었고 매국노(賣國奴)도 아니었으며 비열(卑劣)한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에선 매우 부(富)티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반대로 좋은 얼굴로 좋은 배우 역을 맡았던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불운하게 산 사람들이 있다거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남들 모두에게 아주 잘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생을 별 볼일 없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요즘의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우습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하는 정도의 인물이 잘 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개그맨들 중에서는 역으로 정상적이지 않게 생긴 사람들이 더한 인기와 함께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관상이 어느 한 곳의 믿을 만한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렇다하더라’ 하는 식의 그림과 말 퍼트리기에 솔깃하여, 관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은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도 자기 성품만 잘 관리하고 실력만 쌓은 사람이라면 눈이 세 개이거나 코가 둘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다.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운명을 타할 일이다. 단, 남들보다 심하게 코가 들렸거나 누가 보아도 이상한 턱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사실 손해를 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엔 성형외과 수술도 잘 발달되어진 시대이므로 자기 개척만 잘 해 나간다면 그 또한 문제될 일만은 아니다.

⑧ 얼굴 각 부위에 따른 운명에 대한 反論

“눈이 일직선으로 길게 부처눈(佛眼)이나 봉(鳳)의 눈을 닮은 모양으로 안광(眼光)이 별빛과도 같이 빛나며 흰자위는 은하수와 같이 맑으면 관후(寬厚)하고 인자(仁慈)하여 부귀(富貴)한다.”

위의 내용은 관상 책들에서 나타난 눈에 대한 운명을 대개가 풀이해 놓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즉, 부처 눈은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상에서 그림과 같이 표현해 놓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형상이 아니던가? 또한 봉의 눈은 또 뭐란 말인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봉황의 눈이 어떻게 생겼기에 그와 같이 생기면 좋다는 말인가. 이는 과거 임금이나 영웅들을 좋게 표현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할 때나 용의 눈, 봉의 눈 하는 것이 아닌가.

어른들의 눈은 어린아이일 때의 눈과는 다르게 변해 진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눈을 사용하고, 또한 생활에 피로하다 보니 눈들이 침침해 진 것이다. 또한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 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히려 어른의 나이에도 눈이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이가 있다면 이는 혹시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작고 욕심이 없으니 아이와 같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눈이란 각 민족에 따라 특징들이 있다. 서양인들을 보면 눈이 깊게 움푹 들어가고, 눈 또한 크며, 눈동자의 색깔도 동양인과 다르다. 인도나 서 아시아의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속눈썹이 낙타 같이 길고 술도 많다. 아마도 모래 바람을 막으려는 유전자가 전해져 오는 것이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눈이 대개가 작고 가늘며 눈동자는 짙은 갈색을 많이 띄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비해 바람도 적고 햇볕도 강하지 않으며 적당하기에 눈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될 조건으로 그리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이세들의 눈은 우리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빛나고 크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해석만으로 볼 때 그들 모두만 부(富)하고 귀(貴)하게 살까.

이 세상에 빛나는 눈동자는 없다. 만화에서나 소설에서 추켜세우기 표현이든가 간혹 지나간 성인의 인물을 묘사할 때나 추앙하고 싶은 인물을 지칭할 때 빛나는 눈동자 운운 하는 글들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산 사람이 그러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그런 글들을 보고 실제 산사람에게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무모함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하겠다.

“눈썹이 진하고 빛나며 길게 눈초리를 넘으면 부귀공명(富貴功名)하고 장수(長壽)한다.” 또한 짧고, 흩어지면 방종하고, 희미하면 형제가 없고 고독하며... “ 등은 눈썹에 관한 관상 책들의 해설들이다.

눈썹과 머리털은 대개가 유전적(遺傳的)이다. 즉, 아버지가 대머리면 그 자식들도 대개 대머리인 것처럼 눈썹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 있게 살펴보면 부친의 눈썹을 닮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몸에 난 털도 그렇다. 털이 많은 부모의 자식은 대개가 털이 많다. 그러나 살면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털이 병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머릿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다.

여자들은 대개가 화장을 하므로 눈썹의 올바른 형태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관찰하기 어렵지 않기에, 영상 뉴스들에 나오는 인물들을 유심히 보면 위의 해석들처럼 일정하게 통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해석이 나쁘게 설명된 모양들인데도 고관이나 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 역시 다반사이니 말이다.

옛날 그 어느 한 사람의 운이 좋은 사람을 모델로 하여 그와 같이 생기면 좋다는 식의 관상은 통계를 무시한 행위이다. 전해져 오는 관상 책들이란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통계적이지 않고 예로부터 이렇게 써 있다는 식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범의 눈썹이니, 초승달 눈썹이니 하는 명사적 표현이면서도 그 표현대로 쉽게 동일시 해 낼 수 없는 추상적 해설들은 차라리 유머 책을 보는 듯하다. 정확히 분석해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도 꼭 맞춤 같이 그런 것처럼 표현한 해설에 따라 무조건 관심을 두는 현대인이 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

“코허리가 들어가고, 비뚤어졌으며 콧등이 날카롭거나 코끝이 뾰족하게 생겼으면 빈한(貧寒)한 상이다.” 라는 코에 대한 운명을 해설한 책들의 내용들이다.

코는 인종마다 그 특징들이 사뭇 다르다. 코가 큰 민족이 있는가 하면 낮은 민족도 있고 아프리카 인들은 코의 생김새가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거의가 낮은 코와 뚜렷하지 않은 형태를 갖은 것이 특징이다.

아무튼 코가 잘 생기면 좋은 관상이라 말하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에는 코가 잘 생긴 사람만이 잘 살지는 않다. 꼭 권투 선수만이 아니더라도 운동선수들 대개는 코 부상으로 인해 코뼈가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또한 콧구멍이 들리면 천박하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애교스럽기도 하여 귀여운 대접을 받는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림으로 그릴 때 주로 포인트를 보면 콧구멍을 크게 보이게 그려놓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 이듯이 그렇게 콧구멍이 들여다보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생을 살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다.

“이마가 평평하게 넓고 빛이 나며 주름이 없으면 관록이 있고 이름을 떨친다.” 는 관상 책들의 해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마가 좁고 주름진 얼굴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쇠도 썩고, 땅도 변하며 태양마저 변해 가니 하물며 사람이라면 오죽할까.

한 동안 못 보던 아이들을 만나면 꽤나 많이 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주름진 얼굴과 빠진 머리 형태 등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닌 것이다. 이는 어떤 이를 오랜만에 만나보고는 그 변해진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과거 잘 생겼다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정 반대의 모습을 띄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는 일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의 모습을 보고 오늘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는 말은 혹 이해할 수도 있다하겠지만, 내 모습이 훗날 어떻게 변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도 오늘의 모습을 보고 훗날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잘 생긴 사람을 이야기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이가 배우 신성일 씨다. 그러나 그도 수많은 고통과 험난한 생을 경험 했다. 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고 한데, 그런 잘생긴 사람들도 삶이 그러하다면 얼굴의 생김새로 운명을 판단한다는 일은 이제부터 믿지 않아도 될 일 아니겠는가.

턱이 둥글고 살쪼서 이중 턱이 있으면 부귀(富貴)장수(長壽) 한다는 관상에 관한 책의 풀이를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목 밑의 살은 지방이다. 운동 부족으로 생긴 필요 없는 살덩이인 것이다. 과거 못살던 시절 잘 먹어 생긴 기름진 얼굴에서 나타나던 그 모습이 부러웠는지 지금도 그런 모습을 부귀장수 한다는 써 놓고들 있으니 한심하고 유치하기까지 하다. 지방의 축적은 고지혈증 등 건강을 악화시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부자로 오래 살려면 이중 턱 없이 날씬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상이란 어느 한 부분 부분마다 관상용 나무처럼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설령 어느 관상 책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얼굴에 대한, 좋았거나 또는 나쁜 해설을 보았다 하더라도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자숙을 요하거나 자신감을 가질 일이다.

⑨ 앞니가 벌어지면 복이 나간다

앞니가 벌어진 사람을 보면 그 벌어진 틈으로 돈이 새나간다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대로 비싼 돈을 들여 이를 막았는데도 돈은 계속해서 궁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우스갯소리로 그 막은 이유로 인해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온 건 아닐까?

사실은 이가 벌어져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가 잘 생겼어도 돈 없는 사람들은 많다. 즉, 이(齒) 벌어진 것과 돈이나 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보기에 좀 흉할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2:8로 적은 것처럼 그 8할 중에는 모든 사람의 형상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8할 중에 세상 모든 이의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비율은 자명한 일이므로 자신의 어떤 불만족스런 모습을 찾아내어 돈 없는 것을 위로 삼으려는 심리에다가 한 술 더 떠서 치과 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의 돈벌이 수단이 한 술 더 부추긴 것이라 하겠다.

Ⅶ. 逆 手 相

사람마다 다른 손금,
원숭이 고릴라도 손금이 있지
소 코는 지문으로 각 다르고
얼룩말 무늬도 다 다르지

1] 手相, palmistry의 이해

chiromancy, chirosophy, 또는 손금보기라고도 함.

손바닥의 선과 기복을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성격을 알아내는 방술.

수상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고대 인도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집시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점(占)은 인도에서 전래되었다고 한다. 수상 기법은 중국·티베트·페르시아·메소포타미아·이집트 등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중세의 마녀 사냥꾼들은 수상을 종교의식 속에 포함시켰으며, 피부의 점(點)을 악마와 계약을 맺은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수상은 한동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르네상스기에 다시 성행되었다. 17세기에는 수상의 기본원리에 대해 경험적·논리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계몽운동기 동안 2번째 쇠퇴기를 맞기도 했으나, 19세기에 카시미르 다펜티그니, 루이 아몽(별칭은 케이로), 윌리엄 벤엄 등의 연구에 힘입어 다시 인기를 회복했다. 20세기에는 C. G. 융의 추종자를 비롯해 많은 인물들이 수상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며 해석을 시도했다.

수상에서 관찰되는 신체적 특징들이 심리적 또는 불가사의한 예언적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은 그 사람의 건강이나 청결 상태를 나타내고, 굳은 자리나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등으로 직업 또는 신경성에 의한 버릇 등을 알 수 있다. 최근 수상과 질병의 관련성 문제에 많은 의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 백과사전)

2] 反論

① 손금에 정말로 運命이 적혀 있나

구약성서 욥기37장 7절에 보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손금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동, 서양을 막론하고 큰 관심들을 갖고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손금을 포함하여 손톱 등 손의 모든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수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서양에서 발달한 수상학은 주로 선으로써 그 판단을 하여왔다. 즉,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 등으로 현재 지금 많이들 보는 방식이 주로 서양학으로 보는 손금인 것에 반하여, 동양의 수상학은 주로 오행의 구분과 부호로써 그 운명을 판단하여 왔다.

그런데 여태껏 지속되어 온 손금에 관한 기본 공식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등이 왜 그 선으로 명명되어 왔는가라는 깊은 의구심부터 펼쳐버릴 수가 없어,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그건,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정해져 있는 생명선을 두뇌선이라 하고 두뇌선을 생명선이라 바꾸어 해석을 하되, 그 바꾼 그대로를 전과 같이 해석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손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시킨 결과 그 운명 풀이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즉 새로운 학문(?)으로 확대 논술하여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새로운 이론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딱히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손금은 사람만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 뿐 아니라 영장류인 고릴라나 침팬지 등도 손금이 있다.

오래 전, 당시에는 역철학을 부정하지 않고 공부하던 시기였던 어느 날 필자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 남들에게 들었다며 수상을 뵈달라고 했다. 한 여자는 50대 중반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30대 초반의 나이였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보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물었다. "원래 손금이란, 그 생긴 선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른 것이 사실인데 반하여, 두 사람의 손금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똑같은 모양을 띄었으니 이게 어찌 된 건가." 하고 물었더니 그제야, 어떻게 알았느냐는 듯한 얼굴로 나이드는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무당이고 저 애는 내림굿을 해서 정한 딸인데, 본격적인 무당으로의 길을 가려고 하니, 저 애가 무당의 길로 가는 것이 괜찮은 일이겠느냐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한다 하기보다는, 길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손금이 전반적으로 같다는 것만 주목할 뿐 손금에 정말로 운명이 적혀 있는가에 대하여 필자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삶이 비슷한 사람의 손금이 서로 유사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거나 그 종(種)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개가 비슷한 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간들은 다른 동물과 같지 않게 다소 복잡한 손금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건, 동물원의 원숭이 등 유인원의 손금을 보면 대개가 단순한 몇 개의 굵은 선으로 생겨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즉, 나무 등을 타는 등 오랜 세월 손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원숭이 등은 사람처럼 잔금이 보이질 않는 것과 같이,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손 사용은 원숭이처럼 막 사용을 하지 않되 자질구레한 사용이 많으니 잔금이 많은 것이다. 이는, 막노동을 하거나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손도 두툼하고 거칠며 잔금이 없기는 유인원과 비슷하고, 손을 험하게 다루지 않는 직업을 갖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손이 곱고 손금 또한 잔금이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금이 다소 복잡하게 생긴 것은, 손을 막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새로운 구조물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손에 잔금이 많이 있다해도 어느 순간 생활이 바뀌어 오랜 세월 도끼와 망치질 등 험하게 손을 사용하다보면 그 손의 잔금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업이 비슷한 사람의 손금이 비슷하게 생긴 일은 당연히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다. 이는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닳은꼴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손금 역시 그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 손금의 구조는 단지 인간들끼리 갖고 있는 유사성(類似性)인 것일 뿐이다.

② 각 線의 運命에 대한 反論

생명선(生命線)이란, 엄지아래부터 손목까지의 두툼한 살 언덕 밑을 강물처럼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출발하여 손목으로 향하여 뺨은 선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선은 생명선이란 말 그대로 수명의 장단(長短)을 본다고 전한다. 그 생명선이 깊고 길게 뚜렷하며, 색이 좋으면 장수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그러나 짧은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긴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을 보았다. 요즘엔 사고들이 많이 나는 세상이므로 관상 수상과 상관없이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다.

손금을 보면 굵고 뚜렷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늘고 희미한 사람이 있다. 위 반론 ①에서도 말했듯이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의 손금이 단순하고 뚜렷하며, 비 노동자들에게서는 선이 약하거나 잔금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왜 자기는 노동자도 아닌데 손이 굵고 손금이 뚜렷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기 신체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병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 그 집안의 병력을 찾는 일이 중요하듯이, 조상까지 거슬러 올려 보아야 한다. 동물들이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을 변하지 않고 유전자를 이어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윗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신체구조를 따르는 일은 그리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선비처럼 글만 대하는 직업이더라도 조상이 오랜 세월 무관(武官)이나 힘쓰는 일에 종사했다면 그 후손들은 기골이 장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현세의 손만을 보고 직업 또는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가지선(굵은 선을 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선들)이 생명선을 끊고 있으면 그 시기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전하나, 이도 근거 없는 말이다. 사람은 손을 칠 때 가로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기에 많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가로 금이 생겨나기 마련

이다. 이는 많은 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빈도가 잔금을 만든다는 말인데, 그것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잔금이 없다는 것을 보면 대비될 수 있는 것이다. 세로금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손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책상에 손을 얹어 놓거나 연필을 사용할 때에 손바닥의 세로금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잠을 자면서 혹은 무의식중에도 많은 주름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굵은 손금이나 작은 손금이나 그 의미에 너무 연연할 일이 아니다.

두뇌(頭腦)선도 말 그대로 그 선을 보고 두뇌를 판단한다는 말인데.

어느 손 큰 여자가 자기 부친이 자기보고 잘 살 거라는 말을 했다면서 두꺼비 손이 잘 산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 한 것은 못생긴 손에 대한 콤플렉스를 감춰주기 위한 위로의 말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두꺼비가 인간의 삶에 잘 살고 못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 단지 두꺼비 형태가 둥글둥글 통통하여 그 옛날 부잣집 아이들의 모습 같기에 아마도 그런 비교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또한 전래 동화에 복을 부른다는 두꺼비에 대한 비교적 좋은 이미지들이 그와 비슷한 모양의 두툼한 손을 그리 부추긴 결과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VIII, 逆符籍

귀신을 쫓는다는
닭 피가 붉다.
문방구서 파는 인쇄된 부적은
닭 피도 없건만,
문방구 간판이 붉은가?
닭 잡는 이들은 좋겠다.

1] 符籍, talisman의 理解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오기 위해 몸에 지니는 주술도구.

보통 종이 위에 글씨·그림·기호 등을 쓰거나 그린 것이다. 한국에서 부적의 기원으로 대표적인 예는 '처용(處容)의 화상'을 들 수 있다. 역귀(疫鬼)가 처용의 아내를 범하자 처용이 노래와 춤으로 감복시켰다. 역귀는 처용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라인들이 역귀를 물리치기 위해 처용의 화상을 문에 붙였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한다. 현재 민간에는 무당이 쓰는 부적과 절에서 승려가 그리는 부적 등이 있다. 부적을 만들 때는 택일을 하고, 목욕재계를 해야 하며, 주문을 외우게 되어 있다. 부적을 기능과 사용목적별로 나누어보면, 주력(呪力)으로 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과 사(邪)나 액(厄)을 물리치는 것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칠성부(七星符)·소망성취부(所望成就符)·재수대길부(財數大吉符) 등이, 후자에는 삼재예방부(三災豫防符)·귀신불침부(鬼神不侵符)·벽사부(邪符) 등이 있다. 또 부적에 사용되는 색깔은 황색·주색(朱色)·적색(赤色)이다. 황색은 광명을 뜻하는 것으로 악귀가 가장 싫어하는 빛이다. 주색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 특히 귀신을 쫓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적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화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픈 곳에 붙이거나 불태워 마시기도 하고, 벽이나 문 등에 붙이거나 몸에 지닌다.

(다음 백과사전)

2] 反論

① 符籍을 지니면 合格하나

입시철이 되면 교회나 절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물론 자식들이 시험에 붙게 해달라는 염원에서이리라.

아울러 그것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적을 비싼 값에 얻어다가 자식에게 건넨다.

부적이 뭔가.

종이에 붉은 색으로 문자나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닌가.

지식의 폭이 넓지 않았던 옛날에야 악귀를 멀리하고자 했다지만, 지금 시대에 악귀가 다 무슨 말이란 말인가. 예를 들어, 그 옛날에 어느 집 자식이 아파 누워있을 때, 병명도 모르고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 종교(무당)의 힘을 빌려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낫는다고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 환자는 정신적인 힘을 얻어 병이 낫 수도 있었다고 본다. 물론 쾌유할 수 있는 병을 가졌던 사람 만이었겠지만 말이다.

예수도 말하지 않았던가.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 환자가 병을 낫았다고 말하자. "그것은 내가 고쳐 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낮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시험이 뭔가. 자기가 공부해 온 지식을 테스트하는 방식인데 어찌 어머니가 건네 준 부적이라는 종이로 당락이 결정되어 질까.

원래 부적이란, 해가 뜨기 전에 맑은 몸과 마음으로 닭의 피로 쓴 것을 사용한다 하였는데 설령 그렇게 만들어 졌다 손 치더라도 그 효능에 대하여는 누차 말하였듯이 그 답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인데 하물며 요즘은 인쇄된 종으로 찍어져 나온 부적들이 문방구점에서 종류별로 팔린다 하니 웃지도 못할 노릇이다.

그러나 부적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이가 믿을 경우 그 정신적인 힘을 줄 수도 있다는 데에는 부정하고 싶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즉, 부모가 직접 쓴 편지를 부적이라며 전해 주어도 그 효과는 같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길은 멀고 험해서, 산길을 갈 때는 체력이 필요하겠고, 물을 건널 때에는 주의도 필요할 게다. 또한 밤길을 갈 때에는 담력도 필요하여 혹 귀신(물론 있지도 않지만)에 대한 두려움도 따를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에게의 직접적인 믿음이 있는 부적이라는 의미는 분명 어떤 힘을 작용시켜 주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부적을 지니면 애인이 생긴다든지, 시험에 붙는다든지 하는 망상에 가까운 부적의 맹종에서는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

IX. 맺는 말

역철학을 직업으로 삼기위한 공부는 안 돼
점은 남을 봐주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나만을 위한 거야.
오로지 자기의 수양을 위해
진정한 학문으로 공부해야 해
그러면 자기 앞날은 보여...

1] 迷信

합리적 내용을 갖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신앙이나 의식.

[개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과학적·철학적·종교적 확신이 보다 더 우월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 뜻이 모호해 주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미신은 대체로 종교적·문화적·개인적 미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 체계는 미신을 주변적인 신앙으로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서를 아무데나 펼쳐 처음 눈에 들어오는 본문을 읽으면 성서가 자신을 인도해주리라고 믿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종교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종종 미신으로 비친다. 가령, 콘스탄티누스는 이방인의 종교를 미신이라고 불렀고, 타키투스는 그리스도교를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으며, 많은 개신교 신자는 가톨릭의 성유물·성상·성인 숭배를 미신으로 생각해 배척한다. 그리스도인은 힌두교도의 여러 의식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토tem 신앙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국 모든 종교적 신념과 의식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미신으로 비칠 수 있다.

문화적 전통에 속하는 미신(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미신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지만)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든, 어느 정도만 진지하든 악을 추방하거나 선을 가져오는 방법과 미래를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며 질병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악마의 눈에 대한 신앙, 혹은 부적의 효과에 대한 신앙 같은 민간전승은 거의 모든 시대와 지역에 존재했다. 그러나 그밖에 특정한 나라·지역·마을·가족·사회단체·직장에만 존재하는 미신도 있다. 또한 인간은 개인적인 미신을 발전시킨다. 가령, 어떤 학생이 특정한 펜을 가지고 시험을 잘 보자 그 뒤로 계속 그 펜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는가, 어떤 기수는 회색 말이 잘 달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미신이다. 미신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합리성과 객관적 증거를 높이 평가하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한두 가지의 비합리적인 신앙이나 미신을 갖게 된다.

[韓國의 迷信]

한국에서는 미신을 전통적으로 惑信(惑信), 또는 惑世誣民(惑世誣民)이라 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민간신앙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아왔는데 특히 유교적 지식인들은 민간신앙을 사교(邪敎)로 대했다. 이는 중국의 예법을 따르는 모화사상(慕華思想)의 입장에서 자국의 생활과 풍습을 미신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미신이라는 말은 개화기부터 쓰여졌다. 즉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당시 개화주의자들이 'Superstition'을 번역해 쓰던 것을 그대로 도입해 개화기 이후에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신앙, 또는 전통적인 생활태도·습속 등에 대해 새로이 미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나아가 미신타파운동이 시작되어 기존의 많은 습속이 파괴·소멸되었다. 개화기에는 계몽사상의 대두와 함께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미신으로 몰려 타파 대상이 된다.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봉건사회에서는 속신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낡은 습속들이 미신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몰아 타파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 번 미신타파에 의해 고유한 마을신앙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전통문화들을 모두 미신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미신이라고 간주되던 기존의 전통문화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며 고유한 생활전통이다. 따라서 민간신앙에서 혹 주술 같은 변질된 신앙체계는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보아야 하지만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마을굿 같은 공동체신앙 등은 미신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는 폭넓은 가치기준이 필요하다.

(다음 백과사전)

2) 反論

① 매스 미디어에 나타나는 迷信의 問題點

1996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은 최하 6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2백40만~ 3백만여 명이 매월 복채를 들고 무속인을 찾은 것으로 분석 됐다. (국민일보, “무속 열풍<점치는 사회>” 1997.1.11)

위와 같이(자료들을 찾다보니 날짜가 좀 지난 정보이긴 해도, 미신에 관한 한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기에 발췌해 본다.) 엄청난 숫자의 무속인들이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매스 미디어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필자는 이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네 분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신문이다.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독자들을 미신적 사고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보다는 자포자기하거나 운명론에 빠져 허무주의에 물들게 한다.” 고 기독교인들은 지적하고 있다.(국민일보, “대중매체/선정□ 무속적 내용 판친다”, 1996.3.27)

또한 스포츠신문 등에 나타나는 오늘의 운세, 별자리, 토정비결, 사주 등 그 운세 풀이는 이미 그 도를 넘은 지 오래이다.

둘째, 방송 및 영화 분야이다.

방송위원회는 무속인의 모델 TV광고는 무속적 신비주의를 확산시키며 건전한 사회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의결하고 또한 이것은 역술을 상업화 하고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4조 제 1항 제 5호의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에 관련된 내용은 방송할 수 없다.” 에 의거. 방송중단을 결정하였다. (국민일보, “무속인 모델 TV광고 <방영 불가>”, 1996.6.12)

컴퓨터가 지배하는 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국 땅에서는 점복占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행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매체들은 스스로없이 역술인들의 예언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무속을 상품화 하는 경향을 내비쳐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마저 이 같은 흐름에 편승, 주부들을 주시청자 대상으로 한 아침 프로에 역술인을 출연시키는 등 상식 이하의 방송 형태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일보, TV도 <철학관> 운영하나 “, 1996.1.12)

텔레비전 매체의 고발성 프로그램에서는 미신행위의 문제점을 비판해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에서는 무속인을 출연시키는 등 미신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국민일보, “미신조장 TV프로 강력 항의”, 1997.4.12) 이는 방송매체가 미신타파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통해 미신을 조장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뱀 파이어, 사랑과 영혼 등의 귀신과 영혼을 등장시키는 영화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실적 현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암시를 주기는 폐단을 낳는다.

셋째, 잡지와 서적 분야이다.

주부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월간지에선 점성술이나 띠별로 알아본 이달의 운세 등의 글이 실리고 10대 여학생용 잡지도 ‘점성술로 보는 사랑의 운’ 등의 글이 빠지지 않고 게재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대중매체/선정□ 무속적 내용 판친다”, 1995.3.27) 또한 예언의 기능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잘 살피 미래에 대비하려는 ‘온고이지신’ 이 기본정신이었던 역학서들이 마치 예언서인 것처럼 변질되고 잡기들이 길흉화복을 점친다며 국민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일보, “ ‘무속신앙’ 이대로 좋은가(현상진단과 대책)” , 1996.1.20)

넷째, 컴퓨터 및 뉴미디어 분야이다.

인터넷, 피시 통신 등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인터넷 철학관’ 등은 각종 포털 사이트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메뉴이다. 겉으로 양두구육처럼 첨단 컴퓨터와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서도 속 내용을 보면 역철학으로 꾸며진 졸작들이 네티즌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그야말로 비과학적 내용들이 첨단이기를 등에 업고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각종 미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 같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엔 불과했지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그 내용들은 국민들을 혹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는 것이기에 그 폐해는 크다 하겠다.

② 巫堂

60년대 말 필자가 중학생이던 시절, 세 들어 살 던 주인집 아들이(당시 고등학생) 음독자살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창녀를 불러들여 육체관계를 해대던 한마디로 망나니였다. 그러던 그가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죽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과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아들이 저승으로 편안히 가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불운에 대한 복을 비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무당이 집으로 왔다. 헌데 재밌는 사실은 그 무당이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옆에 계시던 내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 왔다는 사실이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무당이 갑자기 다른 이들의 이목이 땀한 틈을 타

서는 내 어머니 팔을 구석으로 잡아끌더라. 그러면서 나직이 묻기를 “그 아들이 왜 죽었어요?” 하더라. 딱 잡아떼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줬는데, 대충 이야기 들은 그 무당은 시치미를 뚝 떼고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낸 것처럼 곳을 풀어나가더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를 내 어머니께서는 훗날 말씀하셨다.

③ 巫堂 2

필자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래도 친했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성명학 등을 공부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자주 갔던 식당 주인이 부탁하기를, 자기 친구가 내림굿을 하여 새로 무당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니 이름이 없다며 이름 잘 짓는 이를 묻던 김에 나를 떠올렸다. 그 식당 주인을 봐서 이름을 지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그 무당의 본명을 받아 그 이름에 맞는 음양을 상생하게 만들고, 획의 운이 좋은 이름을 선택하여 “명주 보살(깨끗한 명주 천처럼 순수한 의미라는 뜻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특이한 만남이었기에 기억이 또렷하다.)” 이라고 그 뜻과 함께 적어 프린트로 출력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나를 만나잔다. 그래서 인사를 할 겸 만나자는가보다 하고 만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기는 한문을 전혀 모르기에 내가 보낸 한문이 섞인 글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름을 지을 때에는 대개가 한문의 뜻도 중요하기에 한문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려운 한자나 사용하지 않는 한문으로라기보다는 대개가 실용한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 무당은 그 한문 정도를 읽지 못한다며 하는 말이 자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묻지도 않는 말까지 털어 놓았다. 속으로 아연실색 했지만 겉으로 위로 했다. 과연 그 여자가 남의 인생에 대해 제대로인 바른 가르침과 지침을 줄 수 있을까.

④ 巫堂 3

필자에게 어느 날 그 당시 60대 초반의 노인이 찾아 왔다.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그 노인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6.25사변 전에 이북에 있을 때, 처녀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에 세 번 결혼한다는 운명을 가졌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 전쟁으로 첫 번째 부인과 이별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두 번째 결혼을 하여 살고 있으나 그 여자와 잘 맞질 않아 고민이라면서 옛날의 그 무당 말대로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당신이 만일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은 아마 아직도 초혼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그 무당의 말에 인생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에 의미를 붙이려 한다. 점쟁이의 운명이라는 말에는 더더욱 그랬다.

예를 들어, 결혼 운이 한 번이란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혹, 부인과 싸움을 하더라도 ‘나는 결혼을 한 번 한다 했으니 이 싸움은 아마도 일시적인 것이 분명해’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결혼을 두 번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혹, 부인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안 맞으니 두 번 결혼한다 했나봐?’ 라는 쌓여둔 암시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양쪽 모두 망각하고 만다.

꼭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란 것이 거의가 비슷한 범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못 맞춘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다.

점쟁이들에게 지금 당장의 운을 말 해 달라 하면, 말이 복잡해지고 격화소양 격으로 더 답답해지기도 한다. 만일 딱 잘라 말하는 점쟁이가 있다면 그도 분명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판사판 맞으면 인정받고 틀리면 그 때가서 변명하면 되고 하는 식이다.

⑤ 記事, 도선사 大雄殿 佛像에서 빛 나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도선사(道詵寺)에서 26일 오전 불상에서 빛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 혜자(慧慈) 도선사 주지스님은 “이날 새벽 5시 30분쯤 대웅전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삼존불상에서 푸른빛이 쏟아져 나왔다” 고 밝혔다.

마침 이 날은 초하루(음력 9월 1일)라 새벽기도에 참여했던 100여명의 신도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 혜자 스님은 “40여 분간 부처님 상에서 계속 빛이 쏟아져 신도들이 환호했다” 며 “나도 이런 광경을 보기는 처음” 이라고 말했다.

빛이 나온 부분은 대웅전 중앙에 놓인 아미타불상의 가슴부분과 그 왼쪽에 자리한 관세음보살상의 왕관부분, 그리고 아미타불상 뒷부분에 놓인 후불탱화 속 사천왕(四天王)의 비파와 칼. 혜자 스님은 “이날 오후 포대화상(布袋和尚·포대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탁발하는 스님) 동상을 도선사 입구에 세우는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 신기하다” 고 했다.

신라 경문왕 2년(862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선사는 호국의 분위기가 짙은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기풍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특히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정주영 명예회장의 영정이 한 법당(명부전)에 나란히 봉안돼있다. 지난 21일 도선사에서 49재를 치른 고 정몽헌 회장의 영정은 또 다른 법당인 호국참회원 3층에 봉안돼있다.

(박내선기자)

- 위 기사를 보고 당시 필자가 적어 놓은 기록이다.

세계 종교집단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다들 허구일 뿐, 예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한 그림도 자세히 보면 눈 녹아 만들어진 그림이라고는 하나

그런 건 하루 종일 누워 지나가는 구름을 쳐다보면 예수, 부처의 모습은 물론 온 세상 사물이 다 나타날 일이다.

이 기사 이후에 모 방송국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방영한 걸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불상에서 나왔다는 빛의 녹화된 비디오표를 분석해 보니 그 건 대웅전 문 앞에 가로등에서 비친 빛으로 확인되었다.

⑥ 人間の事故만 運命인가?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 45세 우크라이나 인이 "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며 사자 울타리 안으로 넘어가자마자 암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데에는 별로 운명적이지 않게 본다. 그러나 사람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면 그것은 대단히 운명적이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룩말과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운명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것일까.

얼룩말과 사자 그리고 사람은 공히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 얼룩말에게도 사자와 같은 새끼에 대한 모성애는 뛰어나다, 즉, 인간이 갖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 별반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얼룩말은 그저 사자의 먹잇감일 뿐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사자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얼룩말은 죽지 않고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경우도 많고 혹은 집단적으로 강을 건너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자 역시 공격자이면서도 말에게 걷어차이는 경우로 사고를 당하거나 하이에나와 같은 경쟁자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듯이 사람 역시 복잡한 인간의 생활로 비례해 볼 때 그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고 역시 동물들의 사고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만 운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다른 동물에 비해 탁월한 독심술(상대의 마음을 읽어 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나치게 자만한 인간들의 오만일 뿐이다.

⑦ 죽음과 病은 運命的인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종교에 심취하여 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가 먹는 음식물이 부실하고 그 먹는 음식물이나마 병균에 크게 오염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는 분명 병을 얻을 것이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만약 신이 있다 하여도 이미 병균에 흠뻑 오염된 그를 어찌란 말인가.

그러나 신을 부정하고, 그 삶이 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음식물의 영양섭취가 고르고 적절한 운동으로 생활해 간다면, 이는 분명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 예로, 이를 닦되 아주 세심하게 과학적으로 잘 손질을 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열심히 외쳐대며 닦되, 실질적으로는 잘 닦지 못하고 엉성하게 닦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의 치아 건강 상태는 볼 보듯 뻔 할 것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숨이 종교나 미신가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개한 종족일수록 수명이 짧음을 일 수 있듯이 태어난 유전자에 의해 수명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 역시 더 낫거나 못한 환경에 의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 것이다.

⑧ 시카고 지역 妊産婦들 '666' 出産 꺼려

'악마의 날'은 이미 4년전에 지났다. '666'의 날 네덜란드서 '마라톤 기도', 100년만에 찾아온 '666데이'

100년만에 6이 세번 겹치는(2006년 6월 6일) 날로 '악마의 날(Devil Day)'로 불리며 미 전역에서 이와 관련된 갖가지 화제가 만발하고 있는 6일(현지 시간), 시카고 지역의 산부인과들은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들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예비 엄마들은 아이들의 생일이 요한 계시록에 '짐승의 숫자' 로 기록돼 있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악마의 숫자로 여겨져온 666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 출산 시기를 조절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전날인 5일 시카고 시내와 교외의 산부인과등에서는 제왕절개 수술과 분만 촉진 등을 통해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들이 상당수에 달해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카고의 러시 대학 의학센터와 멜로즈 파크의 가트립 메모리얼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맡고 있는 스캇 피어스 박사는 "그동안 6월 6일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임산부들을 여러명 만났다" 고 말했다.

피어스 박사는 5일 가트립 메모리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분만한 한 여성도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생일로 인해 '오멘'등으로 불리며 놀림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알렉시안 브라더스 의학센터에서 분만 촉진을 통해 출산한 두 여성 역시 6일 출산을 피하고 싶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병원 대변인은 지난 3개월간 기록적인 출산율을 기록할만큼 바빴지만 6일은 놀랍도록 한가해 스케줄이 텅텅 비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과 분만 촉진등으로 인해 임산부들의 출산일 조절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2006년 6월 6일 이외에도 핼로윈과 크리스마스, 2월 29일, 9월 11일 등도 역시 임산부들이 출산을 피하는 날들이다.

(2006년 6월 7일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발췌

666 아기엄마, "악마의 날 신경 안 써"

숫자 6 세 개가 겹쳐 '악마의 날'로 불린 어제 세계 곳곳에서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부모들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TV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병원에서 '악마의 날'로 불리는 어제 아기 70여명이 태어났지만, 산모들은 '악마의 날'은 미신일 뿐 아기의 출생이 기쁨 따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 Digital YTN)

⑨ 結局 졌다

2006년 월드컵 토고, 자국 승리 기원 푸닥거리,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대로 주술 등의 힘을 빌고, 자국의 승리를 예언 해뒀어도 결국엔 토고가 2:1로 패했다.

한국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토고의 한 주술사가 토고 팀의 승리를 위해 민간신앙인 부두교 의식을 거행했다. 자콥리믹포라는 이름의 이 주술사는 동물의 해골과 토속인형에 물을 뿌린 주술사는 승리를 위한 주문을 외었다.

리믹포는 의식이 끝난 뒤 "토고가 승리하도록 빌었다"며 "토고는 2대1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감독 사퇴로 내분을

겪고 있는 토고 팀에게 주술의 효력이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CBSTV뉴스부 두윤경 기자)

토고의 부두교 대사제가 토고 대표팀이 주술의 힘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꺾고 16강에 갈 것으로 내다봤다. 부두교 대사제인 토그부 이 아시오그보 냉그블로즈로 3세는 2일(한국시간) 토고 수도 로메에서 45km 떨어진 작은 마을 보간의 부두교 성지에서 한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조들의 영혼이 토고가 16강에 갈 것이라고 말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토고는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성적을 거두는지는 부두교 신자가 아니면 말해 줄 수 없다"면서 "토고는 한국과 프랑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 시작 이틀 전에는 정확한 스코어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고에서는 냉그블로즈로 3세 대사제가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선조들의 영혼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6년 6월 3일)

"침팬지 손이 골키퍼에 특효"...부두교의 진원지 토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이 전 대회 우승국 프랑스를 제압한 뒤 '주술사의 힘'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긴 데에는 주술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내용이였다.

당시 세네갈의 주술사들이 팀 고문이라는 스태프 자격으로 참가해 경기장에 부적을 뿌리고 상대 팀이 솟한 공이 빗나가도록 골대에 '마술의 약'을 바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2002년 월드컵에 앞서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우리는 더 이상 주술사가 경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축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술사가 판을 치는 아프리카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부두교(Voodoo)의 신령스런 힘을 굳게 믿고 있던 아프리카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두교 진원지 토고의 명물, 각종 주물을 파는 시장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아프리카 축구는 주술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 팀은 한국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를 토고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토고는 부두교의 발상지나 다름없다. 부두교는 16세기 경 토고와 베냉의 접경 지대에서 생겨났다. 부두교라고 하면 생각나는 아이티의 부두교도 아프리카 서부에서 서인도제도로 팔려 온 흑인 노예들에 의해 전 파됐다.

인구 500만 가운데 절반이 부두교 신자인 토고의 수도 로메에는 갖가지 주물(呪物)을 파는 시장이 있다. 이곳에 있는 주물 가운데 특히 '침팬지의 손'은 축구 골키퍼를 위한 것이다. 침팬지나 고릴라의 손이 골키퍼에게 도움이 된다는 미신 때문이다. 토고인들은 주술사가 침팬지의 손을 들고 골키퍼의 몸에 각종 신령스러운 약초를 가루로 만들어 뿌리면 민첩성이 상승한다고 믿고 있다.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주자(走者)를 위해서는 말의 머리와 다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토고에는 스포츠 경기에 '부두교'의 전통이 깊게 남아 있다.

독일 월드컵에서 토고 축구의 좋은 성적을 위해 주술의 힘을 쓰겠다고 밝힌 사람은 토고 부두교의 최고 성직자인 토그뷔 나블론도로 3세. 그는 토고 일간지 <팅고 텅고>의 편집국장이기도 하다. 나블론도로 3세는 로메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보간에 위치한 부두교 사원에서 산다.

나블론도로 3세가 토고 부두교의 최고 성직자가 된 이유는 희한하다. 어느 날 부두교의 신이 자신을 최고 성직자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 나블론도로 3세는 그의 부인이 교회의 목사라 부두교 최고 성직자 자리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신의 계시를 받아들였다.

나블론도로 3세는 "토고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예선 탈락한 것에 실망스러웠다. 이 때문에 부두교 주술사들이 독일로 가는 것이다. 주술사들의 마법은 토고 축구에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종성/기자)

이와 같이 위 기사들대로 많은 주술사들의 마법과 비방(祕方)이 쏟아졌어도 그들은 결국 졌다. 설령 이긴 나라들도 마법에 의해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기고 진 것이다.

다음은 스페인 일간지 기사를 소개한 내용을 보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스페인 독일월드컵 우승' 예언

대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2006 독일월드컵 우승팀을 예언했다면 믿겠는가. 적어도 스페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정말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르겠다.

스페인의 최대 무료일간지인 '20minutos'는 21일(한국시간) 16세기 프랑스의 의사 겸 철학자이자 예언 시로 전세계에 화제가 됐던 노스트라다무스가 독일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할 것이라 예언했다고 소개했다.

'20minutos'가 언급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번째달 끝에 스페인의 왕이 군대를 끌고 피레네산맥을 넘을 것이다. 악마의 군대는 중앙 유럽의 벌판에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다. 파괴와 패배가 악마 추종세력에게 떨어질 것이다. 성스러운 성배는 승리를 거둔 왕에 의해 스페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내용대로 라면 중앙 유럽의 벌판은 바로 독일이고 전쟁은 월드컵 대회가 된다. 또 성스러운 성배는 바로 월드컵 우승트로피인 FIFA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실제 이 예언이 월드컵의 결과를 예상했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내용은 현재 전세계를 웃고 울리는 독일월드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축구팬들의 흥미를 끌만 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불쾌한 내용이 바로 스페인 왕과 싸우는 '악마의 군대' 부분. 그렇다면 대회 전체로 볼때 스페인과 맞서 싸우는 한국도 '악마의 군대'에 포함되는 셈이다. 더구나 스페인과 한국은 어쩌면 16강전에서 대결을 펼칠수도 있어 이 예언이 더욱 눈길을 끈다.

이 내용은 스페인의 대중신문에서 흥미를 끌고자 가십성으로 쓴 기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축구의 손꼽히는 강국으로 꼽히면서도 월드컵에서는 4강에 오른 것이 최고성적인 스페인의 국민들이 얼마나 월드컵 우승을 갈망하는지를 이 예언 기사가 잘 보여준다.

스페인은 이번 독일월드컵 H조에서 우크라이나, 튀니지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16강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다. 16강에서는 한국이 속한 G조팀과 8강행 티켓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과연 스페인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처럼 독일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쥘수 있을지 지켜보자.

2006년 6월 21일 (수) 20:25 마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그러나 위와 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우승은커녕 스페인은 프랑스에게 16강전에서 패했다.

2] 結論

역철학에 대한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의 교육에 큰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것은 지금껏 미신에 속하는 운명철학 등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적 차원의 진정한 학문이 없었기에 이르는 말이다. 즉, 미신을 왜 부정해야 마땅한 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전혀 없다 보니 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아주 낯설고 어려운 학문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엔 무식했던 시절의 윗사람들을 따라 무조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학교 교육이 단 한 줄 가르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당연히 직면하게 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소위 동양철학이라는 말로 당면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즉, 결혼할 때 아직도 보내는 사주며, 상을 당할 때 찾는 뭇자리며, 아이 태어나 직면하는 이름 짓는 일은 물론 이사할 때 묻는 방위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가까이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데야 더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또한 정부는 국토가 전부 묘지화 되어가고 있으니 이젠 화장이 좋다, 수목장이 좋다, 하는 등등의 그때그때에 따라 짜 맞추기식의 어처구니없는 말로 묘 문화를 바꾸자고 말한다. 만약 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안티 미신을 이해한다고 보았다면 그야말로 저절로 문화가 바뀌질 텐데 하는 아쉬움에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국민 누구에게나 당면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없이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버려 결국엔 그 바르지 않은 일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사회! 그 결과로 입는 국가적 폐해는 아마도 계산하기 힘든 액수가 나올 것임에 틀림없는 일임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진정 작은 일이라고만 느끼고 눈길을 돌리지 않는 정부와 지식인들이 문제다.

또한 각종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귀신 등 미신에 관한 이야기들, 특히 위에서 지적했던 TV등에서 보여지는 사실적인 분

장들과 영상물들은, 소신이 없거나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실제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결과적으로 귀신을 믿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던가.

결론적으로 말해 과거를 좇는 것만이 문화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안티 미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에 한 발 앞서 누군가라도 나서서 안티 미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논문의 당위성적인 결론을 맺는다.

정보 씬

易哲學에 對한 逆說論

블로그 정보 저널 <http://blog.daum.net/kisro>

저자 정보

발행일 2011.02.17 20:31:22

 블로그